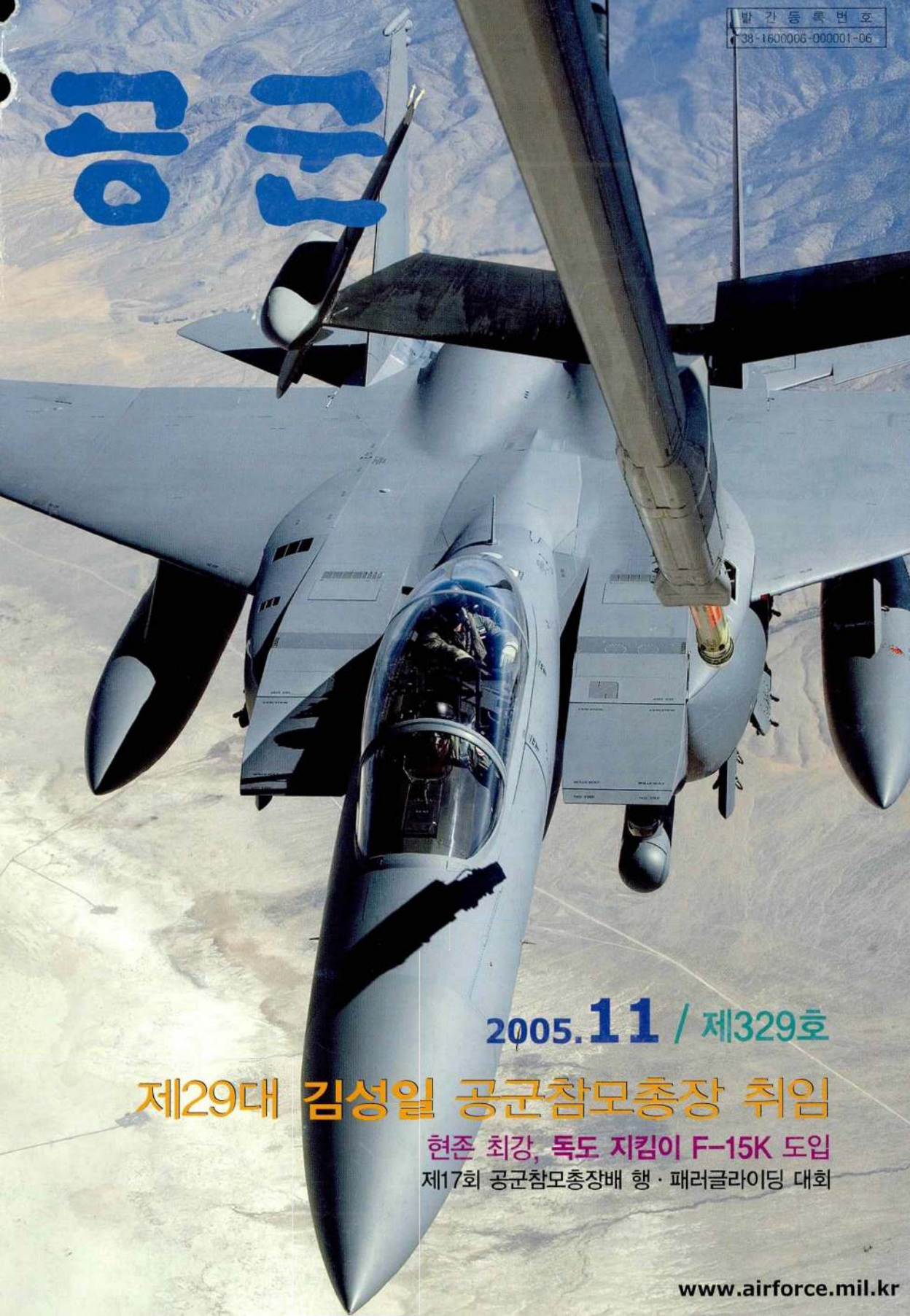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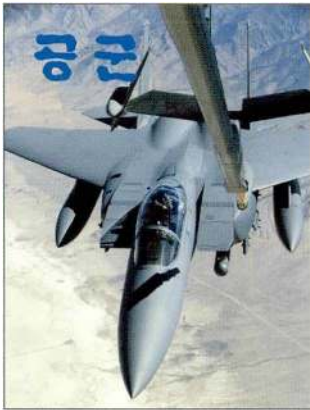
인제



2005. **11** / 제329호

제29대 **김성일** 공군참모총장 취임

현존 최강, 독도 지킴이 F-15K 도입
제17회 공군참모총장배 행·패러글라이딩 대회



미 공군 공중급유기 KC-135의 연료 지원을 받는 F-15K



10
현존 최강 F-15K 도입 -
독도 지킴이 F-15K 첫 2대 한국 도착



16
공군소식 Ⅲ
제18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회 한송정 들차회'



18
기획특집 테마포토 -
제17회 공군참모총장배 「행·패러글라이딩 대회」

- 2 제29대 김성일 공군참모총장 취임사
- 5 참모총장 스케치
- 6 공군은 지금

현존 최강 F-15K 도입

- 10 독도 지킴이 F-15K 첫 2대 한국 도착

공군소식 I

- 13 한서대 국내 두번째 ROTC 창설

공군소식 II

- 14 국산 KO-1 전술통제기 1호기 실전배치

공군소식 III

- 16 제18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회 한송정 들차회'

공군소식 IV

- 17 「서울에어쇼 2005」 대비 대테러 훈련 실시

기획특집 테마포토

- 18 제17회 공군참모총장배 「행·패러글라이딩 대회」 속으로

현장 속 현장

- 21 '대한민국과 공군의 푸른 미래를 마주하다' 「서울에어쇼 2005」 현장 속으로

I Love Airforce

- 24 한국항공소년단 홍보대사 '파란(PARAN)'

여기는 다이만

- 26 사랑하는 아들 한솔이에게

세계의 항공무기

- 28 미국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

세계의 우주력

- 30 차세대 극궤도 기상위성 체계 'NPOESS'

우표로 보는 전쟁사 이야기

- 32 「독·소 불가침 조약」과 카틴 숲 학살



생각하는 그림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34
특집! 테마가 있는 나들이 서울이 품은 물줄기, 청계천을 가다	36
문화가 산책 11월에 가 볼 만한 문화행사	41
법률상식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법률	42
건강 365 건강 신호등 '급성복통'	44
공군 글마당 「아빠는 공군」	46
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 영화 <스피드>를 연상케 하는 박지성의 스피드	48
마음으로 읽는 글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50
영화 이야기 셰익스피어의 고전 <베니스의 상인>	52
책마을 한비아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54
기상전망대 첫눈이 오는 11월에	55
독자의 소리	56
다른 그림 찾기	59
보라매 단상	60
알립니다	



24 | I Love Airforce - 한국항공소년단 홍보대사 파람(PARAN)



36 | 특집! 테마가 있는 나들이 - 서울이 품은 물줄기, 청계천을 가다



41 | 문화가 산책 - 11월에 가 볼 만한 문화행사



52 | 영화 이야기 - 셰익스피어의 고전 <베니스의 상인>



55 | 기상전망대 - 첫눈이 오는 11월에

Inauguration Address

존경하는 국방부장관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국방위원장님, 역대 공군참모총장님, 합참의장님, 한·미연합사령관님, 육군·해군 참모총장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임하시는 동안 '신진 정예공군 육성'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영예롭게 전역하시는 이한호 총장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친애하는 공군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명예 의하여 공군참모총장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대통령님의 통수이념을 높이 받들어 조국 영공수호와 공군 발전을 위해 헌신 진력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공군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공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군
매력 있는 공군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일로써 최우선의 가치이며, 전쟁에 확고히 대비할 때만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공군이 되어 정부의 평화변영정책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한 전략형 공군력 건설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F-15K 최첨단 전투기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가슴 뿌듯한 날로서, 그동안 꿈꾸어 왔던 우리의 소망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취 임 사

자랑스러운 공군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우리는 미래전 양상에 부합한 군구조 및 전력체계의 구축과 병영문화의 개선이 요구되는 전환기적 국방환경 속에서 군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공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변화를 바라보고만 있는 소극적 사고방식과 태도를 바꿔야만 개혁과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군 장병들에게 제안합니다.

정부 차원의 국방개혁 추진에 적극 동참하여 다른 사람이 우리 공군의 역사에 대해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체적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 나갑시다.

우리 사회의 국민의식 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군기가 바로선 가운데 자율적 병영체제 구축과 열린 공군문화 조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군이 되도록 합시다.

아울러 합리적 지휘관리와 상경하애(上敬下愛)의 인화단결(人和團結)을 통해 푸른 제복에 자긍심을 갖는, 일할 맛 나는 공군, 매력 있는 공군을 만들어 나갑시다.

저는 부하들이 더욱 책임감 있고 전문성을 겸비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선도하고, 솔선수범하는데 온 정성을 쏟겠습니다.

공군이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이해하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병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전 요원이 통일된 가치관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공군참모총장의 대임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장관님과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공군 발전에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시고 명예롭게 군문을 떠나시는 이한호 장군님의 앞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의 건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프 | 로 | 필



제29대 공군참모총장
김성일(金成一, 57세) 대장은

경남 진해 출신으로,
경북고를 졸업했으며
1972년 공군사관학교 20기로 임관했다.

김 총장은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기획차장,
합동참모본부 비서실장,
제11전투비행단장,
공군 항공사업단장,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합동참모본부 인사군수본부장,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기획과 정책, 정보 분야에 특히 정통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전형적인 외유내강 스타일인 김 총장은 성품이 온화하고 너그러워
부하들이 많이 따르지만, 본인 스스로는 공사 구분이 뚜렷하고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정보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보 자동화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부대 구조 및 편성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등 선진국형 정보 전력을
갖추는데 역점을 두었다.

F-4D를 주기종으로 2,651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1993년 연세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부인 이선숙(李善淑, 57세) 여사와의 사이에 두 딸을 두고 있다.

Profile



참모총장 스케치



「서울에어쇼 2005」 개막식 참석

10월 18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에어쇼 2005」 개막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님 내외분과 참모총장





1 10월 17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제14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



2 「제14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에서 개최사를 하고 있는 참모총장



3 방공포병사령부는 최근 종합 전투력 향상을 위한 「2005 유도탄 사격대회」를 실시했다.



4 이라크 전장 전투임무수행 2,000시간 비행기록을 달성한 제58항공수송단(다이만 부대)

5 군수사령부는 10월 4일 국내개발 항공기 기술지원 전담부서인 「기술관리부」를 창설했다.



6

제11전투비행단 장병들이 기지 인근의 농촌 마을을 찾아 벼베기와 타작 일손을 돕고 있다.



7

제18전투비행단은 기지내 버려진 폐목을 수거하여 부대주변 독거 노인들을 위한 땀감으로 재활용 하고 있다.



8

10월 5일 평택 남부문예회관에서 군악연주회를 개최한 작전사령부 군악대



9 제3훈련비행단은 10월 20일 부대 내 병사 식당에서 「조리경연대회」를 개최했다.



10 제38전투비행전대는 10월 12일 「호국문예 행사」를 실시했다.

11 교육사령부 기술고등학교는 10월 19일 기아대책 경남지역본부에 아프리카 기아 어린이 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독도 지킴이 F-15K 첫 2대 한국 도착

전날부터 이어진 굵은 빗줄기로 하늘마저 검게 보이던 지난 10월 7일. 공군이 美 보잉사로부터 도입한 차기 전투기 F-15K 40대 중 첫 두 대가 한국에 도착했다.

2일 미국 본토 이륙, 태평양 건너 7일 공군 서울기지 도착

이번에 도착한 F-15K 두 대는 10월 2일, 미국 세인트루이스 기지를 이륙해 하와이, 괌의 미군기지 에서 한 차례씩 기착했다. 비행 내내 美 공군의 공중급유기 KC-135가 함께 비행하며 공중급유를 지원 했다. 두 대의 F-15K는 중간 기착지인 괌을 10월 7일 오전 이륙해 같은 날 오후 공군 서울기지에 착륙 했다. 세인트루이스로부터 총 1만 5,962km를 날아 한반도에 무사히 안착한 것. 순수 비행 시간만 해도 20시간이 넘었다. 연료 소모를 줄이기 위해 경제 속도인 시속 900~1,000km로 순항했기 때문. 두 대 의 F-15K 조종간은 美 보잉사의 조종사 두 명이 잡고 후방석에는 한국 공군의 이영수 소령(공사 38기, 38세)과 보잉사의 무장통제사가 각각 탑승했다. 이 소령은 F-15K 전환 및 교관훈련을 받은 8명의 한 국 조종사 중 가장 만형 격으로 2004년 6월부터 약 15개월 동안 미국 시모어 존슨 기지 등에서 비행훈 련을 받았다.

F-15K, 도입만을 기다렸다

“최신에 전투기 도입으로 이제 도서 지역은 물론 한반도 전역에 대한 작전이 가능케 됐습니다.”

이 소령은 앞으로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서 조국 영공 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F-15K의 성공적 인 ‘데뷔’에 벅찬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이 소령은 “미 본토에서 한반도까지 1만 5,962km를 비행하면서 F-15K의 방대한 작전 반경과 장거리 비행 전술 능력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F-15K는 공군이 운용 중인 KF-16과 조화를 이뤄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우리 영공을 수호할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인수하는 순간을 함께 해 가슴이 벅찬다”고 말했다. 이 소령은 이어 F-15K에 장착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SLAM-ER과 전투 중에도 조종석 내부 계기에 의존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헬멧 조준기,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유도 방식의 전천후 정밀 유도 무기인 정밀공격직격탄(JDAM) 등을 높이 평가했다.

KF-16을 조종하던 이 소령은 앞으로 F-15K 교관 조종사로 올 8월 창설된 F-15K 대대에서 기존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기종 전환 교육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착한 F-15K는 한국 공군에 인도될 40대 중 3·4호기로 11월 중 한국 공군의 수락검사 후 공식 인도된다. 나머지 38대는 2008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된다. 1·2호기는 美 보잉사에서 공대지 공격능력에 대한 최종 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내년 초 한국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 Behind Story 비하인드 스토리

F-15K는 세인트루이스에서 한국으로 어떻게 왔을까?



10월 7일 한국으로 이송된 F-15K는 보잉사 공장이 있는 세인트루이스를 출발하여 하와이 히캄기지와 괌의 앤더슨 기지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다.

구간별 거리는 세인트루이스와 히캄 기지가 6,636km, 히캄 기지와 앤더슨 기지가 6,109km, 앤더슨 기지와 공군 서울기지가 5,584km로 비행 총거리는 1만 5,962km에 달한다. 참고로 서울과 부산간의 거리가 420km인 것을 감안하면 38배에 해당하는 거리다.

F-15K가 공군 서울기지로 이송되는 데 걸린 기간은 총 6일. 이 중 순수 비행시간만도 20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 총 6일이나 걸린 것은 한 번 비행할 때마다 이후 하루씩 휴식했기 때문. 다리조차 움직이기 힘든 좁은 전투기로 20시간 이상을 비행하는 것은 조종사에게 큰 부담이 되기에 비행안전에 위하여 중간 기착지에서 휴식하면서 왔다.

F-15K가 탑재한 연료량은 34,418 파운드(약 15.6톤). 이것은 동체 내부 연료탱크 외에 5개의 외부 연료탱크(21,294파운드)를 장착함으로써 가능했다. 또한, F-15K가 세인트루이스에서 공군 서울기지로 비행하는 동안 공중급유기인 KC-135



항공기가 공중급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자동차의 경우 연료가 부족할 때 주유소에 가서 한 번에 가득 주유하는 것과는 달리, 공중급유는 급유기(KC-135)가 수유기(F-15K)와 함께 비행하면서 목적지에 안전하게 착륙할 때까지 일정 이상의 연료를 유지하도록 수시로 주유를 한다.



The Strongest Fighter 검증된 최강의 전투기 F-15K

현존 최강의 전투능력 보유



한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 F-15K는 현존 최강의 전투능력을 보유한 전투기이다. F-15K의 강점은 군 정보링크 시스템을 통해 공격할 표적을 확인, 사용할 무기를 자동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미 공군 F-15E 전투기의 컴퓨터보다 10배나 처리 속도가 빠른 신형 ADCP(Advanced

Display Core Processor)가 모든 지원을 해준다. 비행 중인 전투기는 물론 지상과 해상의 표적까지 찾아내는 APG-63(V)1 레이더는 F-15E의 APG-63에 비해 처리속도가 두 배나 빠르고 신뢰도는 10배가 될 정도로 정확하다. 타이거 아이(Tiger Eye)라는 항법 장치는 야간에도 목표 지역까지 저고도로 자동 침투할 수 있도록 지형을 확인해 준다. 또한 F-15K는 278km 밖에서 반경 3m의 표적을 맞히는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데이터링크 시스템과 GPS를 연동, 합동직격탄(JDAM)을 24km의 원거리에서 9.8m의 오차 범위 안에 떨어뜨려 병커를 파괴한다. F-15K에만 사용되는 AIM-9X는 조종사의 시선 방향에 따라 날아가는 새로운 개념의 미사일이다.

성능개량 통해 최강의 전투기로 거듭나

F-15K는 기존의 F-15 전투기의 위력에 엔진과 레이더, 무장능력 등 성능을 개량한 전투기. F-15K의 최대 이륙가능 중량은 36.5톤에 달하며 다량의 연료 및 무장 탑재가 가능하다. 또한 전투기 중 최고 추력의 강력한 엔진을 2대 장착, 최대속도가 마하 2.3에 이르러 신속한 임무 투입이 가능하다.

최대 10.4톤가량의 무장 장착이 가능한 F-15K는 공대지 정밀폭탄 및 최신식 공대공 미사일, 레이저 유도무기, 병커파괴탄 등을 운용할 수 있다. 특히 10톤가량의 무장을 장착하고도 연료의 재주입 없이 1,800km 이상의 전투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최첨단 전자장비의 탑재와 가공할 위력의 무장 운용이 가능한 F-15K. 현존 최강의 전투능력을 보유한 F-15K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 본다.👉

원고정리 편집실

한서대 국내 두번째 ROTC 창설



10월 4일 한서대학교 공군 학생군사교육단(ROTC :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이 새롭게 창설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로써 공군은 기존의 항공대학교 학군단에 이어 두 개의 학군단을 운영하게 됐다.

공군은 작년 11월 한서대와 학군사관후보생과정 지정에 따른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올해 7월부터 학군단 창설준비단을 구성하여 각 부대의 우수한 훈육관과 지원 요원을 모집하고 교육훈련 내용을 준비해 왔다.

올해 9월에는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 항공기계학과, 항공교통관리학과, 항공전자시물레이션학과 등의 2학년 재학생 51명을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최초 선발하였다.

항공대학교 학군단에 이어 두번째 공군 학군단 창설

한서대 학군단은 매년 100여 명의 3·4학년 학

군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기초군사훈련, 교내교육 및 입영훈련 등 군사교육을 실시한다(2006년에는 3학년 51명만 교육 실시). 한서대 소속 학군사관후보생들은 2008년부터 임관할 예정이다.

공군은 한서대가 항공학부를 통해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특성화하고 있고 학생 개인당 200시간이 넘는 비행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인만큼, 공군 조종사 확보 창구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공군은 한서대 학군단 창설에 따라 현재 항공대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공군 ROTC 양성제도를 이원화함으로써 학군단간에 발전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군 교육사령부는 10월 4일 교육부사령관 및 각급 지휘관 참모와 한서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한서대 태안비행장에서 학군단 탄생을 축하하는 창설식을 가졌다.

창설식에 참석한 교육부사령관 허일영 준장은 “한서대 학군단의 임무는 공군 초급장교로서 필요한 군사지식, 군인정신, 기초전투 수행능력 등을 배양하는 것이다”라면서, “한서대 학군단이 조기에 정착화되어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고정리 편집실

국산

KO-1 전술통제기 1호기 실전배치



국내 최초 독자 기술로 개발된 무장 항공기인 KO-1 전술통제기 1호기가 공군에 실전 배치 되었다. KO-1 전술통제기 1호기는 10월 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D)에서 이륙하여 공군에 성공적으로 인도되었다. 이번 인수 비행의 주인공은 윤태균(공사 40기) 소령. 윤 소령은 이미 KO-1 전술통제기로 기종 전환 및 시험비행까지 마친 교관조종사다.

윤 소령은 “국내에서 생산한 항공기가 첨단 장비와 전천후 임무수행 능력을 완비하고 실전에 배치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항공기 제작 능력과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증받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무엇보다 우리 손으로 만든 항공기를 독자적인 작전수행 개념에 따라 운용할 수 있게 되어 조종사들의 사기진작과 전력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 독자 기술 개발 군용기 실전 전력화

KO-1 전술통제기는 국내 최초의 독자 개발 항공기인 KT-1의 기본 제원을 유지하되, 항공

전자 장비를 보강하고 외부 연료 탱크와 로켓 발사관 등을 장착, 무장과 장기 비행 능력을 갖춘 기종이다. 앞으로 KO-1 전술통제기는 기존의 O-2기를 대체하여 전투기를 전술적으로 지원 통제하는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을 펼치게 된다.

특히 순수 국내 기술로 화력통제 시스템 및 임무 컴퓨터를 독자 설계하였으며, 조종사의 편의성을 고려한 디지털 계기 및 비행정보와 항공기 상태를 시현해주는 HUD(Head-up Display : 전방 시현장치)를 장착하였다. 또한 NVIS(Night Vision Imaging System : 야간 조명 계통) 및 방빙·제빙장치를 완비하여 야간 전천후 비행도 가능하도록 설계된 기동성과 안정성을 갖춘 항공기이다.

한편, 공군은 KO-1 전력화를 위해 조종사 전환 훈련과 정비사 교육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항공기 격납고 등 시설물 현대화에도 매진해 왔다. 공군은 앞으로도 조종사 및 정비요원의 정예화와 지속적인 전술전기 연마를 통해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전역량을 배가하는데 진력할 계획이다.



“하늘이 지켜준 25년 전 약속”

스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KO-1 전술 통제기의 실전 배치로 25년 전 두 친구의 꿈만 같던 약속이 실현되었다. 화제의 주인공은 KO-1 전술통제기 배치 부대의 대대장 김대중 중령(金大中, 42세)과 KO-1 전술통제기 제작팀원인 국방과학연구소 김영한 박사(金榮漢, 42세).

두 친구의 이야기는 25년 전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중령과 김 박사는 홍익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2학년 8반에서 동문수학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 꿈을 키워가던 김 중령은 김 박사에게 “네가 커서 항공기를 설계하면 나는 네가 만든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었다.

이후 김 중령은 파일럿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하였고 총 2,860시간의 비행시간을 자랑하는 베테랑 조종사가 되었다.

한편, 어릴 때부터 항공공학에 관심이 많던 김 박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항공공학과에 입학하였고, 1988년에 한국과학연구원에 들어가면서부터 KO-1 전술통제기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두 사람의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것은 1999년부터. 김 박사가 진행 중이던 KO-1 전술통제기 제작에 김 중령이 O-2기 조



“네가 커서 항공기를 설계하면 나는 네가 만든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될게”. 두 사람의 약속이 25년만에 이루어졌다.

종사로 참여하면서 두 사람은 25년만에 만나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이후 KO-1 전술통제기가 공군에 인수되는 날까지 고교시절 약속처럼 한 사람은 지휘관으로, 한 사람은 연구팀으로 KO-1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리고 대망의 10월 4일 김 박사와 김 중령은 KO-1 전술통제기 인수비행을 한자리에서 보며 자신들의 25년 전 꿈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KO-1의 인수 작전을 직접 지휘한 김 중령은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KO-1 전술통제기가 대대에 실전 배치된 것도 큰 경사인데, 그 비행을 직접 제작한 사람이 25년 전 함께 꿈을 키워나가던 친구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쁘다”며 김 박사와 손을 맞잡았다.

KO-1의 인수비행 과정을 직접 지켜보기 위해 대대를 방문한 김 박사는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 설계팀의 모든 연구원들이 KO-1을 탄생시키기까지 무수한 땀과 눈물을 흘렸다. 이 결실이 친구의 손에 의해 맺어질 수 있게 된 것에 감개 무량하다”며 대대의 무운을 기원하였다.⊕



원고정리 편집 실



茶道

한송정에서 부활한 신라 화랑의 다도

- 제18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회 한송정 들차회' -

청명한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 서늘한 바람에 실려오는 그윽한 차 향기. 제18전투비행단 내 위치한 국내 최고(最古)의 차 유적지 한송정(寒松亭)에서는 10월 12일 전국 다도인들의 큰 행사인 '한송정 들차회'가 열렸다.

한국고유의 전통 차문화를 양양하기 위한 행사

한송정 들차회 행사는 강릉시가 주최하고 공군 부대의 후원 하에 강릉 동포다도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한국고유의 전통문화 유산을 복원하고 차 문화를 양양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행사는 전통적인 차 문화 의식에 의해 샘터에서 물을 길어 차를 달여 올리는 헌다례(獻茶禮)와 이를 마시는 음다(飲茶)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부대는 장병들과 들차회 참가자들이 함께 국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한층 유익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들차회가 개최되는 한송정은 조선초기 문신 서거정의 <운금누기문(雲錦樓記文)>에 최고의 명승지로 소개된 바 있는 다도의 성지이다. 한송정은 신라시대 화랑들이 국토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 명산대천을 순례하면서 심신을 수양할 때 차를 달여 마시던 곳으로 유명하고, 특히 한송정 위쪽에 자리잡은 샘터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물맛을 자랑하던 곳이다.

선인들이 극찬한 차의 성지 한송정

한송정은 화랑들이 자취를 남긴 이래, 고려 및 조선초기 많은 문인들이 찾아와 찬미하는 시를 남긴 곳이기도 하다. 고려시대 문인 장연우는 이곳을 다녀간 후 <한송정곡(寒松亭曲)>을 지었으며, 이인로, 김극기, 이곡, 김시습 등은 한송정의 아름다움과 화랑들의 기상이 살아 숨쉬는 글을 남겨 한송정의 훌륭함을 대대손손 전하였다.

고속정 강릉 동포다도회장은 "우리의 소중한 차 문화를 널리 알리고 이어가기 위해 이번 들차회를 마련했다"며 "강릉의 울창한 숲 숲, 맑은 바다, 깨끗한 백사장이 만들어 내는 한송정의 맑은 샘물로 달인 차를 마시며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행사 개최 의의를 밝혔다. ☺

원고정리 편집 실





“테러 꼼짝마!”

- 「서울에어쇼 2005」 대비 대테러 훈련 실시 -

최첨단 장비가 어우러진 최고의 대테러팀 가동

10월 11일 서울공항 행사장. 영화의 한 장면처럼 테러범과 대테러팀이 대치한 가운데 실전을 방불케하는 대테러 훈련이 실시되었다.

「서울에어쇼 2005」처럼 국내외의 VIP가 대거 몰리는 국제적인 행사는 테러리스트들에게는 좋은 표적. 이에 대비한 완벽한 대테러 작전은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이 강조되고 있다.

이 날 훈련에는 공군기동타격대 요원 50여 명과 경찰, 민간경비, 육군 특경대 등 총 80여 명의 인원에 최첨단 검색장비인 X-ray 검색차량(일명 ZBV)과 화생방 제독 및 탐지차량, 장갑차, 방폭가방 등 특수장비가 총동원되어 테러리스트의 출현을 가상한 가운데 대테러 훈련을 실전처럼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불순세력이 차량내 이상물질을 은닉하고 ZBV 검색 차량 앞을 통과중 모니터 검색요원이 이를 발견 비상상황을 발령함으로써 시작되었다.

Ordnance Disposal : 폭발물 처리)요원이 방폭가방으로 폭발물 여부를 검색, 안전한 상황이 확보되면서 상황이 종료되었다.

특히 이 날 훈련에 처음 동원된 ZBV X-RAY 검색차량은 국내에 단 1대에 없는 첨단 검색장비로 어떤 형태의 이상물질도 검색해내는 능력을 가진 특수 차량이다. 차량 내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검색차량 앞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 내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투시가 되어 차량 트렁크 등에 숨기나 폭발물 등을 숨겨 들어와도 즉시 발견해낼 수 있어 행사장 내에 테러 요인의 원천적인 봉쇄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 날 훈련을 총 지휘한 서울기지 기지전대장 한병국 대령은 “금번 「서울에어쇼 2005」 행사시 대테러 팀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민·관·군의 완벽한 협조하에 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제거하여 안전한 가운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원고정리 편집 실

민·관·군이 엮어내는 완벽한 테러차단

상황이 발령되자 공군기동타격대 및 경찰, 육군 특경대와 민간 경비요원 등이 순식간에 용의차량을 포위하여 탑승자들을 체포하고 일부 도주하는 용의자들을 외곽 경비요원이 추격 체포하였다. 또한 EOD(Explosive



제17회 공군참모총장배

「행·패러글라이딩 대회」 속으로

10월의 푸른 하늘을 수놓는 색색의 패러글라이더,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하늘을 활공하는 행글라이더. 10월 15일, 16일 양일 간 경북 문경활공장에서 개최된 「제17회 공군참모총장배 행·패러글라이딩 대회」는 그야말로 '창공인의 스포츠 축제'였다.

국내 최고의 항공레포츠 대회인 '공군참모총장배 행·패러글라이딩 대회'. 이번호에서는 행·패러글라이더 타고 가을의 창공 속으로 날아가 보자.

다채로운 시범행사



‘그린 돛’ 푸란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진 개회식 축하비행



절도있는 시범으로 국민들을 매료시키는 공군의장대의 시범행사



축제에 음악은 필수. 문경활공장 가 군악대의 신명나

이제 하늘 속으로 날아보자



바람과의 마지막 힘 겨루기.
저 푸른 창공을 향해 사력을 다해 도약해보자!



행·패러글라이딩 대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날씨. 시리도록 푸른 하늘이지만 바람이
관건이다.
대회 내내 기상대 요원은 기상 관측 중



신화 속 이카로스(Icarus)부터 라이트 형제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짜릿함을 위해 나는 하늘에 도전한다!



이륙 전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대회 참가 선수들



창공을 수놓은 색색의 패러글라이더가 심연을 유영하는 열대어 같다.



정확한 착륙을 위해 선수도 심판도 모두 초긴장.
과정은... 환상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유종의 미

행 · 패러글라이딩 대회 화제의 인물들



하늘을 향한 나의 열정은 계속된다.
쭈욱~~~

패러글라이딩 정밀착륙 부문에 참가
한 송주영 선수(올해 연세 69세)



이번 대회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정밀착륙 부문에서 정상을 차지한 공군사관
생도들. 특히 패러글라이딩 정밀착륙은 1~3위를 모두 휩쓸어 단체상까지 수상했다.

자료정리 : 편집실

사진촬영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대위 표승진, 중사 편보현,
중사 성지용, 제16전투비행단 하사 박영민

‘대한민국과 공군의 푸른 미래를 마주하다’

「서울에어쇼 2005」 현장 속으로



객원기자 박수현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로 손끝이 뾰뾰 얼어 붙던 10월 22일. F-15K와 T-50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꼽아 기다리던 「서울에어쇼 2005」 행사장을 찾았다.

토요일 아침 9시, 아침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각부터 기다랗게 줄을 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관람객의 모습에 기자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공군이 야심차게 준비한 행사임을 알고 있다는 듯 수많은 관람객들은 그렇게 기대에 가득 찬 눈을 반짝이며, 열렬한 호응으로 답하고 있었다. 그럼 이제부터 열기 가득한 「서울에어쇼 2005」의 현장으로 출발해 보자!

세계 각 국 유명 군수업체들이 한 자리에

가장 먼저 각종 군수생산업체들의 부스가 전시되어 있는 곳을 둘러보기로 한 기자. 홀 안으로 들어서자 이름만 듣던 세계 각 국의 유명 군

수생산업체들의 부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건 한국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F-15K를 홍보하고 있는 보잉사의 부스와 대한민국 공군의 부스.

특히, 공군부스에는 조종복과 조종사의 생환에 필요한 장비 전시와 함께, 실제 조종석에 앉아 조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시뮬레이션 장비를 설치해놓아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오락에 친숙한 신세대들에게 시뮬레이션 조종은 그야말로 인기만점. 길게 늘어선 줄에 공군부스는 그야말로 대박,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항공우주시대의 주역 항공소년단 발대식

항공소년단의 발대식이 있을 거란 안내방송에 따라 한참만에 야외로 나온 기자. 가을 햇살과 만난 항공소년단복이 산뜻함을 더한다.

‘한국항공소년단’은 항공우주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항공소년단체. 청소년들에게 항공분야에 대한 흥미와 개척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올해 설립되었다. 공군 군악대와 의장대의 멋진 공연으로 시작된 발대식. 군악대가 힘찬 음악을 연주하자 발대식장의 분위기는 한껏 달아 올랐고, 이어진 의장대의 포부 당당한 멋진 모습에 관객과 단원들 모두가 힘찬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항공소년단의 홍보대사인 아이돌 그룹 '파란(PARAN)' 과 여성 최초로 전투기 조종사가 된 제8전투비행단 편보라 대위의 「홍보대사 위촉식」이 거행되고, 단원들 사이에선 파란과 편대위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한 자리 쟁탈전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하늘에 그린 그림, 블랙이글 시범비행

곧이어 이어진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의 시범비행. 9월 Air & Space Power Day 행사장에 이어 두 번째 그들을 만나는 자리였다.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늠름했고, 관객을 대하는 모습은 공군을 대표하는 신사들다웠다.

드디어 블랙이글의 곡예비행이 시작되고, 서울어쇼를 위해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탓인지 그들의 비행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박진감 있었으며, 새로운 기술도 선보여 기자와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던 하늘은 블랙이글의 예술비행을 위한 멋진 캔버스가 되어 주었다.

F-15K의 위용과 마주하다

블랙이글 시범비행을 구경하다 해바라기가 되어버린 기자. 비행이 끝나고 지상으로 눈길을 돌렸다. 한 눈에 들어온 F-15K. 그 수려한 자태에 가슴은 점점 벅차 오르고 발걸음은 경보 수준이 될 정도로 빨리지기 시작했다. 지금 내 눈앞에 서있는 전투기가 바로 그 F-15K란 말인가. 그





용감무쌍한 자태에 다시 한번 눈길이 간다. 크기 면에서도, 성능면에서도 F-15K의 위용은 단연코 다른 전투기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아쉽게도 기자가 방문한 날에는 시범비행을 직접 볼 수 없었지만, 지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기자는 발길을 뗄 수가 없었다.

F-15K가 주는 감동에서 헤어나와 옆쪽으로 발길을 옮기니 몸체를 반짝이며 전시된 T-50이 기자의 눈에 들어온다. T-50의 개발로 한국은 세계에서 12번째로 초음속 항공기를 독자 개발한 국가가 되어 위상을 드높였다고 한다.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F-15K와 초음속 훈련기 T-50을 한 자리에서 모두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기자는 더할 수 없이 영광이었다.

활주로 끝에서 끝까지... 항공기를 구경하다

활주로의 끝에서 끝까지 발에 물집이 생기도록 항공기들을 구경하고 다닌 기자. 자세히 보니 공군만이 아닌 육군, 해군, 미군의 항공기까지 총동원되어 있었다. 그냥 스쳐지나 갔다면 그냥 "많구나" 했겠지만, 가이드를 자청해주신 현원준

대위님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현 대위님이 전시된 항공기마다 세세한 무장까지 다 설명해 주실 때 귀를 쫑긋 기울이는 관람객들을 보며 기자는 왠지 가슴 뿌듯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가진 자의 행복이랄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현 대위님께 감사를 표한다.

이번 「서울에어쇼 2005」는 항공소년단의 발대식이 함께 거행되어 어느 때보다도 더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 관람객을 위한 세심한 이벤트, 관람객들의 열렬한 성원을 받았던 F-15K와 T-50의 일반공개. 규모면에서나 준비면에서나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았던, 공군의 발전해가는 미래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 공군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전해준 뜻깊은 행사였다.

국민과 함께 했던 「서울에어쇼 2005」, 발전해나가는 공군의 푸른 미래를 기약해보며, 그 감동을 가슴에 깊이 새겨본다. 기자는 벌써부터 2년 뒤에 열릴 「서울에어쇼 2007」이 기다려진다. ☘

사진촬영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중위 허봉희,
중사 편보현, 중사 성지용,
사진작가 Martin Fenner

항공소년단 홍보대사 '파란(PARAN)'

· 객원기자 박수현



가요계에 파란을 일으키겠다는 멋진 포부로 혜성처럼 등장한 무서운 신인 그룹 파란(PARAN). 「서울에어쇼 2005」 행사장에서 항공소년단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파란의 멤버 Ryan(20세), Neo(19세), Po(18세), Ace(18세), Aj(15세)를 만났다. 신인답지 않은 성숙함과 매너로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인터뷰, 이제부터 '파란'의 매력에 푹 빠져보자!

공군지 독자 여러분들께 파란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파란: 파란은 '가요계에 파란을 일으키겠다'는 멋진 포부를 갖고 데뷔한 글로벌 그룹입니다. 이번에 항공소년단의 홍보대사를 맞게 된 만큼 10대들의 생각과 코드만이 아니라 공군 장병들의 생각과 코드까지도 반영할 수 있는 멋진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공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평소 공군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이 있다면?

파란(Ryan): 외할아버지가 공군에 복무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공군에 대한 이야기를 많

이 듣고 자랐습니다. 항상 군대에 간다면 꼭 공군으로 복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에어쇼를 찾아 직접 공군의 능률하고 멋진 모습을 보니 정말 좋습니다.

Po: 공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파일럿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렇게 가까이서 공군 파일럿들의 능률한 모습을 실제로 보니 '이 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멋진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항공소년단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는데, 소감과 축하인사를 해주신다면?

파란: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는 건 그만큼 저희들을 믿고 앞으로 열심히 책임감을 갖고 활동해줄 바란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홍보대사라는 직책을 맡았으니 최선을 다해 항공소년단을 알리고 싶고, 저희가 항공소년단의 얼굴이 된 만큼 공군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오늘 발대식에서 단원들의 얼굴을 보니 모두가 하늘에 대한 사랑과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는 밝은 청소년들이나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울산 공군 독자들을께~ 저희 그룹파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타이틀곡 "전파랑"... 도 역시 많이 사랑해주세요...^^

Tran PARAN



「서울에어쇼 2005」를 관람한 소감은?

파란: 가장 인상에 남는 건 블랙이글과 F-15K입니다. 관람객들에게 짧은 시간동안 멋진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오랜 시간을 준비하셨을 블랙이글 팀원들을 보고 정말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하늘에 그려주신 하트와 태극은 진짜 멋졌습니다. 팀원들 모두가 블랙이글의 비행을 보고 팬이 되어버렸어요. 블랙이글 파이팅! F-15K는 매번 뉴스에서밖에 볼 수 없었는데, 이렇게 직접 볼 수 있어 너무나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로서 정말 당당하고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파란: 파란은 글로벌 그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팀원들 모두가 준비단계에서부터 언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탄탄하게 다져진 언어실력을 발판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싶고요, 아시아 전역에 한국의 가요를 알리는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해 나가는 파란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파란의 목표는... 신인상이요!(^^)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군 장병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파란: 이곳에 와서 보니 공군 장병 여러분들의 노고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노고를 알고 응원하고 있는 저희들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높고 푸른 기상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모습을 기원하며, 공군 장병 여러분 파이팅!!

짧은 시간이었지만, 파란과의 인터뷰는 매우 즐거웠다. 공군지 독자들을 위해 사인을 해주는 배려까지 잊지 않은 '가요계의 다크호스' 신인 그룹 파란. 항공소녀단의 홍보대사로서 나날이 발전하는 파란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

※ 이라크 평화재건 지원 임무를 위해 쿠웨이트에 파병된 제58항공수송단(다이만 부대). 파병 1년, 전장 임무 2,000시간을 넘기며 열사의 땅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다이만 장병들의 이야기를 이번호부터 「여기는 다이만」이라는 코너를 통해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한솔이에게

김유희(제58항공수송단 조 한솔 병장 어머니)

꽃바람이 불던 4월,

그동안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걱정과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단다.

4월 27일 새벽 5시 4분, “어머니, 저 이제 곧 출국해요” 네 전화를 끊고 나서 엄마는 엎드려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우리 한솔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함께 근무하는 장병들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라며. 지금도 새벽마다 너를 위해, 또 다이만 부대원들을 위해 기도를 계속하고 있단다.

TV나 신문에서 이라크 파병 이야기가 나오면 혹시나 우리 아들이 나올까 싶어 자리를 뜨지 못하고, 중동지역에 테러 소식이 들릴 때면 우리 아들은 괜찮은가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걱정하는 엄마에게 오히려 너는 “어머니, 이렇게 오지 않았으면 언제 외국 구경하겠어요?”라며 희망찬 목소리로 엄마를 달랬지. 엄마는 그런 아들이 얼마나 대견스러웠는지 몰라.

지난 여름 내내,

난 거센 모래바람과 50℃를 오르내리는 사막에서도 잘 견디고 있는 한솔이를 떠올리며 무더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냈다. 그렇지, 10월인 지금도 쿠웨이트는 한낮에 40℃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우리 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 그런데 엄마는 우리 한솔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고, 집안이 엉망이 되어 대입 수험생인 네 뒷바라지도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수능시험 당일조차 아버지가 입원해 계셔서 막내고모가 도시락을 싸준 것도 항상 마음에 걸렸단다.

시험을 다 치르고 나서 돌아와서는 병원에서 잠든 아버지 모습을 보며 “아버지 아프셔도 좋으니, 우리 곁에 오래만 계주세요”라며 아버지 곁을 지켰던 너를 보면서 눈물을 연신 흘렸단다. 하지만 아버진 그해 우릴 두고 떠나셨지.

네가 공군에 입대하고 늙은 군인이 되어 휴가를 나올 때면 동생 은솔이 학교에 들려 선생님 과 상담하며 먼저 동생과 엄마의 건강을 챙기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씩씩한 공군의 아들이 되어 국위를
선양하고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면 엄마는 가슴 뿌듯한 마
음으로 공군에 감사할 뿐이다. 지금의 네 군 생활과 파병
경험이 후에 사회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이겨내는 밑거름이 될거라 믿는다.



이번 추석날도 전화를 해서 아버지 산소에 다녀
왔는지 물었었지?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하는 널 보며 얼마나 대견스러웠는
지 몰라. 이제 돌아오면 우리 셋이서 부산에 계
시는 할머니와 함께 할아버지 산소, 아버지 산소
도 찾아뵙자구나.

추석 전날 밤엔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

갑자기 국방부 장관님께서 우리 집에 전화를
주셨다. 장관님께서는 “조한솔 병장 어머니시
죠? 며칠 전 쿠웨이트에 있는 공군 다이만 부대
를 다녀왔는데, 조한솔 병장은 건강하게 잘 근무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은 기간 동
안 임무 잘 마치고, 무사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겠
다”고 자상하게 말씀하시더군요. 난 장관님의 전
화를 받고, 네 안부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다.

얼마 후면 6개월간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한솔이, 더욱더 성숙하고 능률한 대한민국
공군이 되어 돌아오리라 생각된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씩씩한 공군의 아들이 되어 국위를 선양
하고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면 엄마는 가슴 뿌듯

한 마음으로 공군에 감사할 뿐이다. 지금의 네
군 생활과 파병 경험이 후에 사회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이겨내는 밑거름이 될
거라 믿는다.

청명한 하늘과 가을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가
을, 우리 아들이 파병임무를 마치고 곧 돌아올
거라 생각하니 엄마는 무척 기쁘다. 그리고 네
가 자랑스롭다. 이제 얼마 있으면 보고 싶은 우
리 아들을 만나겠지?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아들 사랑한다. 파이팅! 🇰🇷





미국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처 소령(진) 이 봉 근

이번 호에서 알아볼 최신 미사일은 미국의 Raytheon(레이시온)사에서 개발한 차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9X이다. AIM-9X는 현재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사용 중인 AIM-9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계열 중 가장 최신형이다.

어떻게 개발되었는가?

지난 18년간 AIM-9M을 장착한 전투기는 AA-11을 장착한 전투기에 비해 단거리 공중전에서 초고각(High off-boresight) 표적 획득 및 미사일 발사 능력 부족으로 인해 열세를 보여 왔다. 특히 적 전투기 조종사가 합동 헬멧 조준 체계(JHMCS : Joint Helmet Mounted Cueing System)를 사용하면 적기 포착, 추적 및 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이 불리했다.

모든 전투에서와 마찬가지로 단거리 공대공 전투에서도 먼저 보고 먼저 쏘는 능력은 승리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고 전투기 조종사의 생존성 증대 및 공중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AIM-9M을 대체하는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AIM-9X 개발은 미 해군과 미 공군의 합동 프로그램이며, 미 해군이 개발을 담당하는 것으로 지정되었다. 최초의 AIM-9X 공중 발사 시험은 1999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련의 분리 및 제어 시험과 표적 추적 능력 검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1999년에서 2001년 사이 AIM-9X 프로그램은 19회의 분리 및 제어 시험을 실시하였고, 미

해군 F/A-18 및 미 공군 F-15 항공기에서 18회의 실사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18회의 실사격 시험 중 14번은 F-4 전투기를 개조한 QF-4 무인항공기를 대상으로 직접 격추시키는 실험이었다.

AIM-9X는 E&MD(체계개발 : Engineering & Manufacturing Development) 단계에서는 미사일의 전술 체계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F-15C, F/A-18C/D 전투기 및 합동 헬멧 조준 체계와의 연동을 완성하였다.

F/A-18C/D, F-15C 연동에 추가하여 후속 시험 평가 단계에서 미 해군 F/A-18E/F, 미 공군 F-15E, F-16, JSF, F-22 전투기에도 연동될 예정이다. 또한 AIM-9X는 LAU-12X, LAU-7 발사대와도 완전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AIM-9X 미사일은 2003년 11월 운용시험(OT : Operational Test)을 통과하여 2004년 5월부터 본격적 생산이 인가되었다.

AIM-9X 미사일의 특성

AIM-9X는 표적 획득과 추적에서 수동 적외선 에너지를 사용하여 발사 후 자체 유도(fire and forget)가 가능한 공중 전투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시계 사거리 밖(NBVR : Near Beyond Visual Range)과 시계 사거리(WVR : Within Visual Range) 안에서 모두 운용할 수 있으며, 주·야간 운용 능력, 적외선 방해책에 대한 대응 능력, 초고각 표적 획득 및 발사 능력으로 조종사들에게 먼저 보고 먼저 발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F-15 전투기에서의 AIM-9X 실 사격 장면

또한 맑은 하늘과 클러터(Clutter) 배경에서도 크게 개선된 표적 획득 거리의 증가, 민첩한 추력 방향 제어(Thrust Vector Control)로 향상된 기동성 및 고성능의 초점면 배열(FPA : Focal Plane Array) 센서를 장착하는 등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AIM-9M 부품(기체, 로켓모터, 탄두, 신관)을 사용하여 AIM-9X를 설계함으로써 우수한 성능과 함께 개발 위험 및 비용을 낮췄다.

AIM-9X 개발 프로그램과 함께 개발된 합동 헬멧 조준 체계(JHMCS)는 $\pm 90^\circ$ 이상의 off-boresight 각도에 있는 표적에 대해 미사일 발사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와 같이 향상된 능력으로 인해 AIM-9X는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근접 전투에서 획기적인 기술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직경은 12.7cm, 전방 핀과 후방 핀 직경은 각각 35.31cm와 44.45cm이다. 전방 핀은 고정되어 있으며 방향 조절은 후방 핀과 추력 방향 제어(TVC)에 의해 조절된다. 최대 사거리는 10km로 알려져 있지만 18km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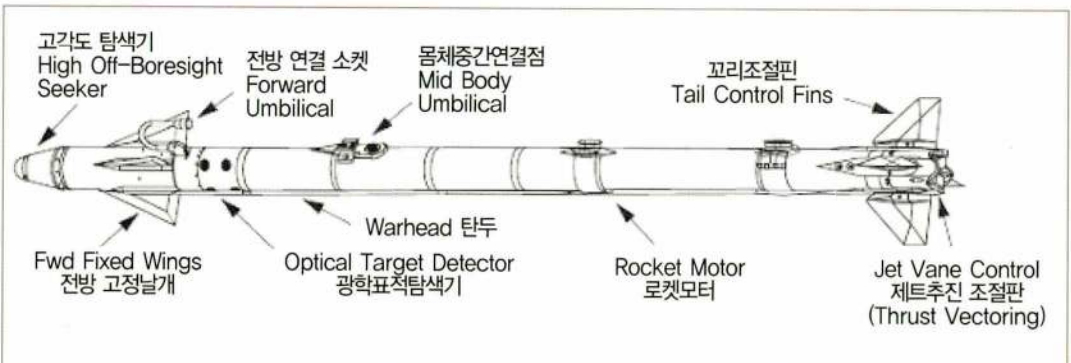
향후 전망

2005년 3월 1,000번째 미사일이 생산되었으며, 미 공군과 해군은 향후 18년간 10,000발 이상의 AIM-9X를 획득할 예정이다. 폴란드, 스위스 및 덴마크 등은 이미 AIM-9X를 차세대 단거리 미사일로 채택하였으며, 다수의 다른 국가들도 획득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공군도 F-15K 전투기 도입과 연계하여 AIM-9X 미사일을 전력화할 계획이다.

지난 40년간 미국은 근접 공중 전투에서 우세를 유지하여 왔으며 AIM-9X 미사일 생산 및 실전 배치로 앞으로도 계속 공중 우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제 원

AIM-9X 발사 중량은 85kg, 길이는 3m, 동체



차세대 극궤도 기상위성 체계 'NPOESS'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처 중위(진) 안 승 혁



NOAA POES의 허리케인 이사벨 영상

대기현상을 측정하여 정확한 기상관측을 하기 위한 기상위성. 기상위성은 정지궤도 위성과 극궤도 위성으로 구분된다.

고도 800km 전후의 극궤도 위성은 적도 상공 36,000km에 위치한 정지궤도 위성으로는 측정 불가능한 고위도 데이터와 낮은 고도를 활용한 세부적인 다양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현재 극궤도 기상위성을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인도, 중국이 있으며, 성능에 있어 기상 데이터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극궤도 위성은 미 공군의 DMSP(Defense Meteorological Satellite Program)와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POES(Polarorbiting Oper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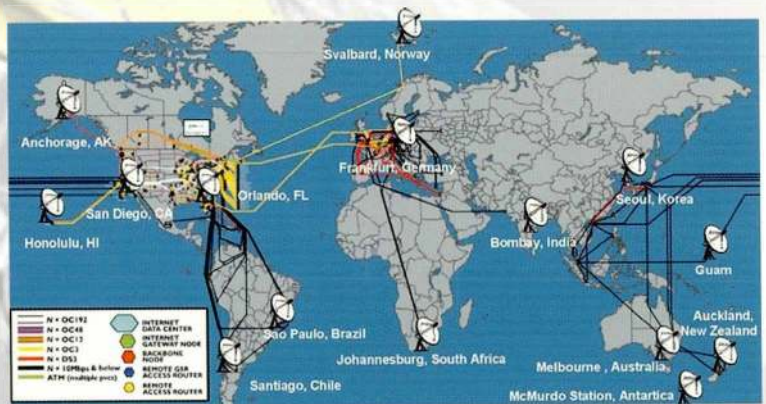
추진 계획

NPOESS(National Polarorbiting Oper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 System)는 미국에서 중복 투자하여 군과 민간의 극궤도 위성 체계를 통합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운영 중인 2기의 DMSP 위성과 2기의 POES 위성은 3기의 NPOESS 위성군으로 대체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위성 획득 및 운영비용이 2018년까지 총 16억 달러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DMSP 통제권은 '98년 4월부터 미 공군 우주사령부에서 NPOESS IPO로 넘어갔으며, 현재 POES와 DMSP에 대한 모든 통제는 NOAA의 위성 운영 통제 센터(SOCC : Satellite Operations Control Center)에서 이뤄지고 있다.

통합 NPOESS 위성의 첫 발사는 2009년이 될 예정이며, 극궤도 위성 체계가 NPOESS로 완전히 교체되는 시점은 2013년으로 잡고 있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유럽의 첫 극궤도 기상위성 METOP(Meteorological Operational, 2006년 발사 예정)이 POES 1기를 대체하고, 장기적으로 NPOESS 1기도 유럽의 METOP으로 대체하여 시스템이 운영될 계획이다.



NPOESS의 지상국 네트워크 SafetyNet

운용 성능

NPOESS는 기상 상태에 대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센서의 발전과 위성의 변화 및 진화를 목표로 계획된 장기 프로그램이다. 차기 극궤도 위성은 향상된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영상장치와 측정장치를 통해 기상, 대기, 해양, 대륙, 근우주 환경에 대한 55개의 높은 시공간 해상도를 갖는 전지구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파하는 것을 주요임무로 한다.

위성에 저장된 데이터는 전 지구에 배치되어 있는 15개의 저비용, 무인 지상국으로 전송될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 갱신율은 4시간 정도로 예상된다. 위성으로부터 제공받아 각 지상국에서 저장하고 있는 전 지구 데이터는 상업 광섬유 네트워크로 지상국과 연결되어 있는 4개의 중앙 통제소로 전송되는데, 위성과 함께 새로 구축될 네트워크는 이전에 120~180분의 지연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여, 15분 이내에 77%, 28분 이내에 95% 전송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NPOESS의 다양한 탑재체는 대기 온도와 습도 분포에 대한 정밀도를 높여 3~5일 단기 기상 예보 정확도는 70~80%에서 90% 이상으로, 5~7일 예보는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구름 등의 기상 조건과 무관하게 탐측가능한 CMIS(Conical-scanning Microwave Imager/Sounder)의 생산물은 기상 현상의 중요한 원인인 해양 표면의 풍속과 풍향에 대한 향상된 예보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한 허리케인 착륙 예보 기술은 피난시키지 않아도 되는 해안선 지역 1mile당 약 100만 달러를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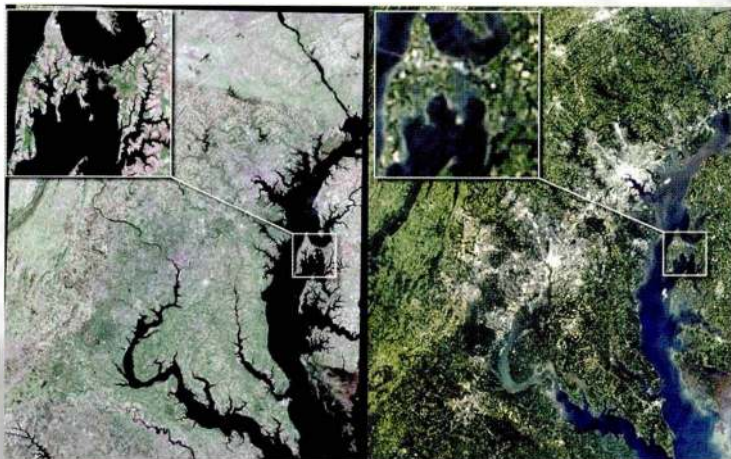
NPOESS 모식도

약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스텔스 전투기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는 비행은 형성, 공중급유, 적외선 유도 미사일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밤에도 이용 가능한 22개 채널의 VIIRS (Visible/Infrared Imager Radiometer Suite)가 제공하는 구름 등에 대한 향상된 정보는 매우 유용할 것이다.

군 작전에 매우 중요한 기상

테러와의 전쟁 중 미 공군은 개전 이후 석 달 동안 기상예보의 영향으로 목표물의 15%, 무기의 30%를 변경한 바 있다. 또한 이라크 지상 침공시 야간 헬리콥터 습격과 미·영 합동 상륙 작전 준비의 일환으로 해안가의 안개와 파도 경향을 조사하기 위한 요원을 5일 전에 작전지역 근처로 투입하기도 했다.

이처럼 군 작전에 기상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위성을 이용한 기상 예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단순히 기상 정보를 획득하는 기존의 전략·전술 관점은 대기와 우주의 기상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예상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



지표탐측 위성 Landsat의 영상(왼쪽, NPOESS와 동급), NASA의 지구관측위성 테러의 영상(오른쪽)

「독·소 불가침 조약」과 카틴 숲 학살

공군본부 군사연구실 대위 김만식

지난 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독일의 폴란드 침공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는 데 숨은 조력자(助力子) 역할을 했던 구 소련의 활약상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기 직전에 이미 구 소련과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면협약에 따라 폴란드의 부그강과 나레프강을 따라 이어진 경계선 동쪽은 구 소련이 차지하고 독일은 서쪽을 차지하는 것으로 상호간에 협약을 해 놓고 있었다.

1939년 9월 1일 독일군이 폴란드를 전격 침공하자 구 소련군은 독일이 폴란드를 뜨겁게 요리하는 동안 먹이감이 먹기 좋게 식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9월 17일, 꺾데기만 남아 있는 폴란드에 선전포고를 하고 폴란드 영내로 식은 죽 마시듯 물밀듯이 진격해 들어왔고, 사전에 약속된 대로 부그강변에서 진격을 멈추고 독일과 사이좋게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였다(하지만 이들의 밀애(密愛)는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41년 6월 독일의 구 소련 침공으로 끝나게 된다).

이 시기 독일군이 점령한 폴란드 서쪽 지역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인종청소가 시작되고 있었고, 구 소련군이 점령한 동쪽 지역에서는 전 시 소집된 폴란드군 예비역 장교들을 구 소련 KGB(국가보안위원회)의 전신인 NKVD(비밀경찰)가 카틴(Katyn) 숲에서 잔인하게 집단사살해 버리는 '카틴 숲 학살사건'이 발생하는 등 폴란드는 두 점령자들에 의해 말뚝할 고초를 겪게 된다.



폴란드를 사이좋게 분할 점령한 뒤 부그강변에서 만난 독일군과 구 소련군



카틴 숲에서 최후를 맞이한 폴란드군 장교들의 죽음을 장엄한 톤으로 담아내고 있는 마셜공화국 우표

「독·소 불가침 조약」

오스트리아와 체코는 손쉽게 집어삼킨 독일이 있지만 폴란드의 경우는 문제가 좀 복잡했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은 2개였다. 그 첫 번째 산은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의 즐거운 만찬을 이번에도 가만히 구경만 할 것인가'라는 문제였고, 두 번째 산은 폴란드와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거대한 붉은 곰 구 소련이었다. 특히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더라도 구 소련과 국경을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것은 히틀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고민 끝에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독·소 불가침 조약」의 체결이었다. 1939년 8월 23일 모스크바에서 독일외상 리벤토로프와 구 소련 인민위원회 의장 겸 외무인민위원 몰로토프가 조인한 「독·소 불가침 조약」은 겉으로는 상호불침략, 일방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 다른 일방국은 그 제3국을 원조하지 않으며, 상호간에 정보교환 및 협의를 위하여 접촉하고, 쌍방 모두가 일방을 직·간접의 적으로 삼는 국가집단에는 참가하지 않으며, 상호간의 분쟁은 평화적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

었다. 그러나 뒤로는 폴란드의 분할 점령과 동유럽에서의 독·소 세력권을 확정한 비밀의정서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조약의 체결로 독일과 구 소련은 폴란드를 사이 좋게 나눠먹게 되었지만, 애당초 근본이 맞지 않던 두 집단(나치당과 공산당)은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독일군이 구 소련을 침공함으로써 서로 결별하고 기나긴 전쟁을 벌여 나가게 된다.

카틴(Katyn) 숲 학살

전반부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빈사상태에 빠진 폴란드 동쪽 지역을 식은 죽 먹듯 삼켜버린 구 소련군은 포로로 붙잡은 폴란드군 장교들을 카틴(Katyn) 숲으로 끌고 가 잔인하게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카틴 숲 학살'을 자행하게 된다.

이 카틴 숲 학살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자행된 3대 학살사건(일본의 난징대학살 : 20여만 명, 독일의 홀로코스트 : 700여만 명) 중 하나로, 학살당한 폴란드군 장교들의 숫자는 관련 자료마다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2만 명까지 다양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들이 전시 소집된 예비역장교들로서 폴란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실질적인 엘리트 집단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카틴 숲 학살은 냉전시대 악명을 떨친 KGB의 전신인 NKVD에 의해 자행되었다. 구 소련은 영구적인 폴란드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장차 반소(反蘇)운동과 폴란드 민족운동을 벌여나갈 가능성이 농후한 이들 폴란드군 장교들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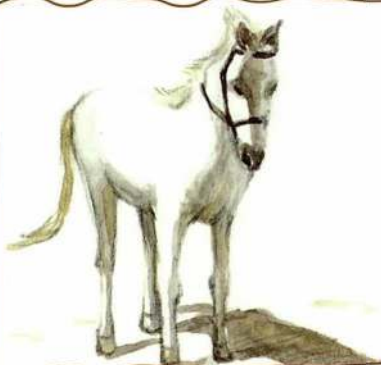
하지만 구 소련은 이 카틴 숲 학살을 자신들의 소행이 아닌 독일의 소행으로 날조하고 덮어씌웠다. 1990년 구 소련이 해체되면서 비로소 자신들의 만행을 시인하고 폴란드에 공식적인 사과를 하게 된다. 현재 카틴 숲에는 학살당한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비와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어 약소국 폴란드의 설움과 아픔을 후세들에게 대변해 주고 있다. ㉠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구성 : 김영실
그림 : 김영은

기원전 201년, 당대의 실력자였던 한 고조 유방이 이끄는 32만 대군을 물리치고 한족들에게 북방유목 민족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을 심어준 '흉노'. 그 대승의 주인공은 당시 흉노의 군주였던 '목특'이었습니다.



사실 목특이 처음 군주가 되었을 때만 해도, 흉노는 같은 유목민족인 '동호'에게조차 꺾박받는 일개 부족에 불과했습니다. '동호'는 목특이 군주가 되자마자 "예를 갖추어 너의 애마(愛馬)를 진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부하들은 목득이 분노할 것이라 여겨 "동호를 공격하자"고
 했으나, 목득은 "말 한 필 때문에 전쟁을 할 수는 없다"며
 동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1년 후 동호는
 이번엔 목득의 애첩을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



목득은 또다시 "여자 때문에 피를
 부릴 수는 없다"며 애첩을 동호에 보냈습니다.
 얼마 후 동호는 다시 사신을 보내
 "말모지를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부하들은 "목득이 동호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여 "말모지 없는
 땅이니 그냥 넘겨주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득은 칼을 뽑아 들고 좌중을 둘러보며,
 "애마와 애첩은 나의 것이나, 땅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눈치를 보며 나의 애마와 애첩을
 아끼더니, 부족의 땅은 넘겨주자고 말하는구나.
 나는 단 한치의 땅도 외적에게 넘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적적 군사를 이끌고 가 동호를 멸망시켰습니다.
 한족의 입장에서 쓰여진 중국역사는 목득을
 '포악한 패륜아'로 기술했지만 그는 왕사의 구분이
 명확했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서울이 품은 물줄기, 청계천을 가다

객원기자 박진석

도시가 달라졌다.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와 삭막한 도로뿐이던 곳에, 졸졸 물소리가 들리고 역새가 자란다. 청계천이 복원된 서울의 달라진 모습이다. 새물맞이 행사가 있는 지 이제 한 달. 시민들의 삶 한가운데 자리잡은 청계천을 찾아가 보았다.

쉼터, 환경, 역사, 세 마리 토끼를 잡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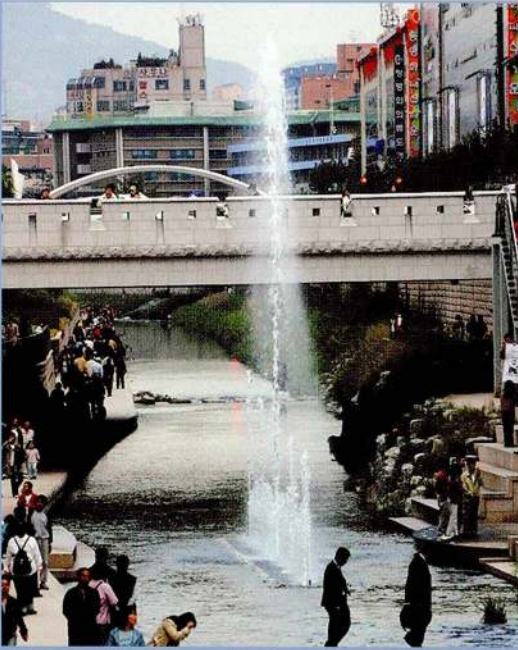
청계천은 개천이다. 조선시대 당시 자연적으로 도심을 지나던 물길인 청계천을 정비하려고 만든 기구가 개천도감이었던 데서 비롯한 고유 명사이다. 특히 세종 때, 홍수 방지와 동시에 생활하수를 흘려보내는 하천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역사를 되짚어 보면, 이번 복원공사의 의미가 크다. 더러운 물을 흘려보내던 청계천은 도시환경에 숨통을 틔우는 새로운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단순히 시민들의 휴식터만 마련된 것이 아니다. 복원 이후 대기오염 물질이나 소음 수치가 확실히 내려가고 있다. 또한 청계천 자체가 고밀도의 도시공기를 순환하게 해 주는 바람길 역할을 해서 도시 열섬 현상도 해소되고 있다고 한다. 청계천을 덮어 버렸던 공사가 개발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한 것이었다면, 이번 복원공사는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한 것이다.

복원공사를 통해서 살아난 것은 환경뿐만이 아니다. 서울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다리들도 복원되고 있다. 서울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에



- ◎ 광고 앞에는 손모양의 조형물이 시민들에게 손짓한다.
- ◎ 정조반차도를 살펴보고 있는 학생들
- ◎ 워터 스크린은 밤이면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 ◎ 오간수 다리 앞에는 패션분수가 시원스레 물을 뿜는다.
- ◎ 청계광장 캔들분수와 폭포의 아름다운 야경
- ◎ 평화시장입구 버들다리에 있는 전태일 흉상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곳이 청계천 다리였기에, 이를 쫓 따라가 보는 것은 곧 서울의 역사를 따라가 보는 것이기도 하다.

청계광장은 이미 서울의 명소

청계천을 도보로 즐기는 방법은 두 가지. 세종로에서 시작되는 물길을 따라 쫓 내려가는 방법과, 성동구에 위치한 청계 문화관에서 출발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이다. 시가지에서 쉽게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물길을 따라 내려간다는 의미에서 청계광장으로 향했다.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청계광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청계천 물길은 사람들로 붐빈다. 모처럼 짬을 낸 가족들이나 푸른 눈의 관광객만이 이곳을 찾는 것은 아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 넥타이 차림의 직장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가로이 풍경을 즐기며 걷고 있다. 한 달만에 시민의 쉼터로 완전히 자리잡은 느낌이다. 삼색 조명이 어우러진 분수와 4미터 규모의 폭포가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폭포에서 청계천의 첫 번째 다리 모전교까지의 구간이 팔석담(八石潭)이다. 과거의 조선 팔도와 미래의 통일 한반도를 상징한다. 특히 이 구간은 조명이 아름다워 밤이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청계천의 '얼굴' 이기도 하다.

청계천 다리를 보면 서울의 역사가 보인다

모전교를 지나면 눈에 들어오는 다리가 광통교. 종로 네거리에서 을지로 네거리 방향으로 가다 청계로와 만나는 길목에 있다. 이 다리에는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사연이 있다. 태조 이성계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묘에 있던 돌로 만든 다리라는 것이다.

태조가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왕자는 강씨의 소생인 방석이었다. 이에 전처 소생인 이방원이 일으킨 난이 그 유명한 '왕자의 난'. 이후

왕위를 차지한 태종 이방원은 계모인 신덕왕후의 묘를 옮기면서 그 돌들을 다리 건설에 쓴 것이다. 조선 초 어지러운 역사가 스며있는 다리랄까.

전통 양식의 장통교를 지나 김홍도의 지휘로 당시 유명한 화원들이 그렸다는 정조반차도를 감상해 보자. 타일 5천여 장으로 섬세하게 재현해 둔 정조반차도는 청계광장과 함께 꼭 봐 두어야 할 포인트.

한국 근현대사를 압축한 삼일교와 수표교

정조반차도를 지나면 현대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는 삼일교가 나온다. 조선시대에는 이 자리가 장통교가 있던 자리이고, '삼원삼재(三園三齋)'의 천재화가 중 한 명인 오원 장승업의 생가가 이 근처에 있었다.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3·1 독립선언이 있었던 탑골공원에서 이어진다고 해서 삼일교라고 이름을 붙였다.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가도로인 삼일고가로(청계고가로)가 있던 자리이며 가까이에 있는 삼일빌딩은 당시 자체 건축 기술만으로 세운 고층빌딩이었다. 독립선언에서 근대화까지, 이곳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장통교를 지나면 수표교 자리가 나온다. 복원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라 임시로 수표교의 모양을 본뜬 보행교를 만들어 놓았다. 장통교와 수표교는 정월 대보름이면 다리 밟기 놀이를 하던 백성들의 놀이공간, 해방구로서의 의미가 컸다. 한편 일제시대엔 김두한 등의 '야인'이 주름잡던 종로 일대의 중심이기도 하다. 가장 유명했던 청계천의 다리 수표교가 제대로 복원되어 다리 밟기 놀이의 전통을 되살리는 곳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동대문시장 일대 다리에선 경제발전기의 기억이

관수교, 세운교, 배오계 다리를 지나면 동대문시장 일대의 다리가 나온다. 제일 처음 사람들을



- 청계천으로 인해 환경이 되살아나고 있다. 유유히 헤엄치는 오리를 바라보는 시민들
- 시원스럽게 청계천을 흐르는 물줄기
- 도심속 시민들의 산책로로 자리잡은 청계천 물길은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공간이 되었다.

맞는 다리가 새벽다리. 새벽시장을 기리기 위한 이 다리는 모양도 재래시장 천막을 형상화하였다. 이 다리에서 이어지는 방산 시장의 먹자골목은 지금도 유명하다. 우마시장이 있던 자리인 마전교를 지나면 동대문 의류시장의 발전을 기원하는 나래교가 나온다. 현대식 공법으로 나래를 활짝 편 나비를 형상화한 아름다운 다리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벼들다리에는 1970년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이 일대의 다리를 꼭 훑다보면 하루하루 땀 흘리며 살아가는 평화시장 상인들과 노동자들의 신산스러움이 느껴진다.

그 다음이 청계천 상류 도보관광코스의 마지막인 오간수다리. 청계천의 물줄기가 동대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오간수문이 있던 곳이라니 슬슬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될 법하다. 임꺽정 무리가 서울을 빠져나갈 때 이곳을 이용했다고 한다. 동대문 패션상가의 오늘을 상징하는 패션광장에는 분수가 화려하다. 청계광장과 캔들분수로 시작한 발길이 패션광장과 패션분수로 끝나는 것이다.

주변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접근한다

시발점인 청계광장에서 청계천 전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오간수다리 패션광장까지는 짧은 다리로 빨리 걸어도 한 시간 반이 걸린다. 천천히 산책하다 보면 3시간이 넘는 긴 코스. 힘들지 않고 청계천의 필요한 명소만 돌아보고 싶다면

간선버스인 주황색 01번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아직까지는 복원공사 이후 교통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동대문 일대에서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잘 조절해서 이용해야겠다. 이외에도 청계천에 접근하는 대중교통은 많다. 시발점인 청계광장은 지하철이나 버스로 광화문 인근에서 내려 동아일보사 건물 쪽으로 가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종각역(1호선), 을지로입구, 을지로 3가, 을지로 4가, 동대문운동장역(이상 2호선), 신설동역(1호선) 등이 청계천 흐름을 따라 이어져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청계천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청계 도보관광코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도보관광코스는 청계광장에서 오간수교로 이어지는 1코스와 청계문화관에서 오간수교로 이어지는 2코스가 있다. 각기 문화유산 해설사와 역사 문화 자원봉사자가 있어 훌륭한 가이드 역할을 해 주고 있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성동구에는 청계 문화관이 있고 청계 2가에는 청계 홍보관이 있어 다양한 시청각 자료로 청계천의 역사와 미래를 알아볼 수 있다.

한편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덕수궁, 서울광장, 세종문화회관, 종각 등 문화시설이 밀집해 있고, 패션광장을 중심으로는 청계 2가에서 6가까지는 각종 시장과 상가가 즐비하니 이를 잘 따져서 코스를 정하면 가족 나들이 혹은 연인과의 데이트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여유 있는 주말, 청계천으로 가보자. 📍



갓가지 조명으로 더욱 아름다운 모전교의 야경

11월에 가 볼 만한 문화행사

수 십만 년 전의 선사시대부터 격동의 20세기까지 한반도에서 살아온 우리네 선조들의 삶의 흔적이 되살아나는 곳. 2005년 문화가 최고의 화제라고 할 만한 새 국립중앙박물관이 드디어 10월 말 개관했다.

광복 60주년 새로 단장한 국립중앙박물관

우리나라 5000년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 전통 성곽을 본뜬 웅장한 외관이 특징이다. 건물 규모만으로 보면 세계 최대급 박물관이다. 전체 면적으로 봐도 영국 대영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미국 뉴욕 근대미술관,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이어 세계 6위급.

외형에 걸맞게 전시 유물도 대폭 업그레이드됐다. 총 15만 점에 달하는 소장 유물 중 1만 1,000여 점이 개관 때 전시된다. 전시 유물 중에는 국보 59점, 보물 79점이 포함되어 있다.

최고의 명품이 한자리에

용산 박물관은 첫 전시를 위해 여러 개인 소장가와 사립박물관에서 국보급 문화재를 빌려왔다. 부여박물관의 금동대향로와 간송미술관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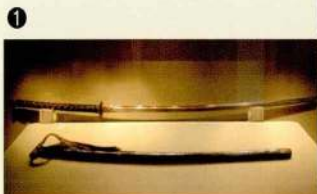
장의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70호)을 비롯해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국보 180호)와 윤두서의 자화상(국보 240호)과 같은 최고의 명품도 한자리에 볼 수 있다. 이 밖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칼과 감은사 동탑 사리갓춤, 화엄석경 등도 소장처를 떠나 이곳에 전시된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반환한 북관대첩비도 전시 대상. 북관대첩비는 임진왜란 당시 정문부 장군을 비롯한 함경도 의병의 활약상을 담고 있는 비석으로 1905년 일본이 강탈, 그동안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방치돼 온 슬픈 사연을 지닌 문화재다. 손기정 용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으로 기증 받은 그리스 청동 투구도 전시된다.

이들 국보급 '대어품' 만 해도 제대로 감상하려면 하루 관람으로 부족할 듯하다. 관람 코스만도 4km, 대충 본다 해도 전체 관람에는 11시간이 소요된다. Ⓣ

-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 관람료는 올 연말까지 무료
내년부터 19~64세까지 개인 2,000원,
7~18세까지 1,000원
- 문의는 (02) 2077-9000/www.museum.go.kr

- 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칼(장검)
- ② 통일신라의 고달사 쌍사자 석등
- ③ 손기정 선수의 투구
- ④ 금동반가사유상(국보 83호)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법률

공군본부 법무감실 법무관 대위(진) 심 동 영

공군 비행단에서 지난 2년간 ‘보라매 슈퍼’를 경영해 온 ‘나주인’ 씨. 그러나 나씨는 비행단측과 약정된 2년의 계약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매점을 경영하고 있다. 이에 비행단측은 나씨에게 매점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한창 자리를 잡아 이익이 짝짤한 나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비행단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한다.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은 관청에서 개인에게 식당이나 그 밖에 매점을 경영하게 하는 것

과 같이 개인의 사용이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경우 허용되고 있다.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국가 또는 정부기업이 직접 공공용·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이나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행정재산’이라 한다.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등이 있다. 이에 반하는 개념으로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하는 ‘잡종재산’이 있다.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 출자의 목적 등으로 개인적 권리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나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허가에 의한 사용을

법적 성질

공군 비행단측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이러한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의 법적 성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법제2조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른 특별법에도 규정이 없고, 국유재산법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법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것은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의 법적 성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대립하나, 1976년 개정된 국유재산법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의 철회에 대하여 잡종재산의 임대차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허가의 취소, 철회를 직접 규정하였고(법 제28조), 사용료 체납처분시에는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법 제25조제3항)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공법관계'로 본다(판례도 같은 취지). 이제부터 위의 논의를 토대로 공군 비행단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검토해보기로 하자.

비행단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우선 법 제51조제1항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로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에 의하여 비행단측은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씨가 민법 제639조의 '묵시적 갱신의 성립'을 이유로 매점을 계속 경영하면서 계약기간 경과 이전과 동일한 사용료만을 내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의 법적 성질은 공법관계이므로 민법상의 임대차조항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나씨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면 된다.

해결책은 행정대집행법에

그렇다면 나씨를 위 매점에서 퇴거시키거나 나씨가 비행단의 승인 없이 매점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지, 또한 위 매점에 있는 나씨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법 제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국가 또는 정부기업이 직접 공공용·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이나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행정재산'이라 한다.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등이 있다.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지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퇴거와 관련하여 대체집행이 가능한가가 문제되는데, 퇴거의무의 경우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위 행정대집행법 제2조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대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한편, 시설물 철거의무나 매점 내의 물건을 치워야 할 의무 등은 퇴거의무와는 달리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씨가 비행단측에 대해 자신이 매점에 설치한 시설물의 설치비용의 상환을 요구하거나 시설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남은 답은 한 가지. 나씨는 아쉽겠지만 매점을 비워야 한다. Ⓣ



건강 신호등

‘급·성·복·통’

제3방공포병여단 군의관 대위 강 지 호

복통은 감기와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경험하는 증상이다. 통증이라는 것은 발생하는 부위에 관계없이 달갑지 않고 불쾌하지만, 잘못된 무언가를 알리는 경고라는 점에서 득이 될 수 있다. 특히, 급성 복통의 경우에는 배 안에 있는 여러 장기의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는 좋은 실마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달에는 흔히 발생하는 복통의 성상에 따라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복통의 위치에 따라

보통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4등분하여 구분한다. 복부의 우상복부에는 간과 담낭이 위치하고 있다. 간의 경우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위가 아프다면, 담낭이나 담관의 질환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가장 흔한 것은 담석에 의한 급성 담낭염이다.

만약, 우하복부에 통증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급성 충수돌기염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물론 여성의 경우에는 하복부에 통증이 있는 경우 산부인과적인 질환에 대해서도 꼭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명치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나 십이지장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드물게는 심장이나 폐의 급성질환의 경우에도 명치 부위에 통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한편, 옆구리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신장 등

의 비뇨기계통에 문제가 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배가 전체적으로 심하게 아프다면 급성 복막염을 꼭 고려해 보아야 한다.

복통의 양상에 따라

복통이 있을 경우 위급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간헐성 복통이나 지속적 복통이나 하는 점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속적 복통은 대개 염증성 및 출혈성 질환시 복막을 자극하여 생기며, 대개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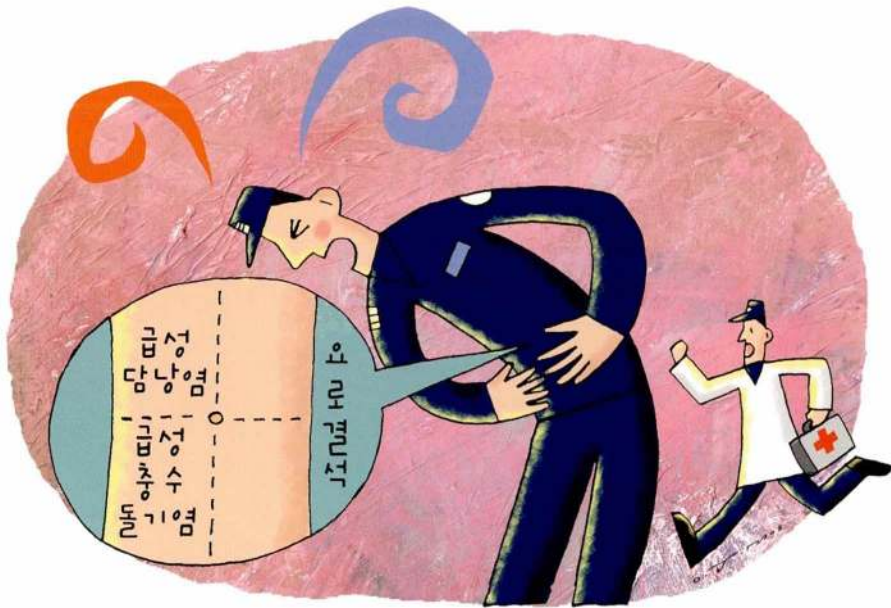
그런 반면 간헐성 복통은 대개 위장관, 담도, 비뇨기계의 평활근의 경련으로 발생되며, 이러한 간헐성 복통을 유발하는 질환으로는 급성 위장관염, 식중독, 장폐색증, 담석 및 요로결석 등으로 인한 통증이 포함된다.

급성 복통을 유발하는 중요 질환과 임상양상

급성 위장관염

흔히 ‘장염’이라고 불리며, 급성 복부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환이다.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하며, 대개 구토와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통증의 양상은 간헐적이며 경련성이다.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지만, 열이 심하게 나거나 설사가 심한 경우에는 입원해서 항생제치료나 수액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급성 충수돌기염

충수돌기는 맹장 끝에 꼬리처럼 달려있는 부위를 가리킨다. 흔히 맹장염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맹장이 아니라 충수돌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급성 충수돌기염'이 정확한 명칭이다. 급성 충수돌기염의 경우 처음에는 어디가 아픈지 모를 정도로 애매한 복통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하복부로 통증이 국한되는 경우가 전형적이다(남자, 여자에 상관없이 충수돌기는 오른쪽에 위치한다). 급성 충수돌기염은 반드시 수술을 통해서 충수돌기를 제거해야 하며,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 천공이 되어 복막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급성 담낭염

우상복부에 지속적이고, 심한 통증이 있으며 열이 나는 경우 급성 담낭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의심되면 초음파검사를 통해 담석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대개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필요로 한다.

장천공

장천공의 가장 흔한 원인은 소화성 궤양이다.

갑자기 극심한 복부통증이 발생하며,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게 된다. 배를 만져보면 근육이 경직되어 단단함을 느낄 수 있다. 이때에는 즉시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

요로결석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갑자기 옆구리에 발생한다. 결석이 소변 나오는 길을 자극하여 경련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일단 통증을 조절한 후, 검사를 통해 돌의 위치와 크기를 파악하고, 치료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요즘은 몸 밖에서 초음파로 충격을 주어 돌을 깨뜨리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만약, 열이 나면서 옆구리가 아픈 경우에는 급성 신우신염 여부를 감별하기 위해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시행한다.

흔한 '복통'에도 이렇게 원인은 제각각이다. 이제부터는 배가 아프다고 무조건 '엄마 손은 약손'을 하거나 소화제를 먹을 것이 아니라 부위와 증상을 살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써보자. Ⓣ



『아빠는 공군』

박 헌 숙(김세한 예)대위 부인

나의 아이는 지금 두 살된 딸아이다. 그런데 이 아이는 “경례”하면 꼭 사내아이처럼 거수경례를 한다. 아무리 여자아이처럼 절하는 것을 가르치려 해도 막무가내로 거수경례만 한다. 아빠가 당직 서느라 며칠 집을 비우고 보이지 않으면 길 가다가도 군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아빠”하고 부르며 따라가려 한다.

이 아이가 처음 제복을 알아보게 된 것은 생후 5개월 되던 때인가 보다. 전속 가는 아빠를 따라 탄 경부선에서 잠깐 자리를 뜬 아빠를 찾다가 뒤에 선 공군아저씨를 보고 자꾸 보낸다. 보다 못한 공군아저씨가 안아주니까 그제야 울음을 그친다. 아마도 아빠인 줄 알았나 보다.

나는 결혼 전에 공군에 있는 아빠를 통해 몇몇 공군을 만날 수가 있었다. 그들이 단지 유니폼이 주는 젊음이 아닌 또 다른 싱싱하고 때묻지 않은 내면적인 젊음을 소유하고 그것을 만끽하는데 서슴지 않았기에 나 또한 그 꿈을 잃고 싶지 않

아 공군인 아빠와 결혼하여 나의 만 2년째인 공군 아내의 이력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생활이란, 더구나 군인생활이란 언제나 파란 하늘 밑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었나보다. 때로는 검은 먹구름이 바로 우리의 머리 위에서 그 위세를 떨치기도 했다.

우리에게 그렇게나 어린 갓난아기가 있는지조차 아는지 모르는지 무정한 전속명령에 따라 현실적인 O. 헨리의 단편 소설은 시작되었다. 막상 생후 5개월의 갓난애와 함께 우리의 옥내 캠프 도구를 풀었을 때 나는 아빠와 함께 어이없는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내가 공군의 아내였기에 받아야 했던 위로와 친절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한집 건너 공군부인들의 심심찮은 위로로부터 앞집 뒷집 동네 아줌마들의 과분한 친절에 이르기까지.



나는 감히 나 자신과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공군의 많은 아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기에,
“우리는 하늘을 지키는 아빠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국방은 우리가 한다는 자부와
언제나 푸른 젊음 속에서 신선한 호흡을 같이 한다는
내적인 풍만함과 내 비록 전속에 대한 불만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것조차 여행이 주는 즐거움과
낮선 풍물에 대한 경이를 주지 않던가?”라고 말하고 싶다.

어쨌든 나는 서울에 있어야 했고, 내가 아프다
면 누가 와서 나의 아이를 돌봐줘야 하고, 나란
히 놓인 나의 가구에 걸레질을 하고, 가끔은 정
다운 친구의 방문에 깔깔거리는 웃음이 있어야
할 나의 생활의 한 부분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제복이 보기조차 싫기도 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나라가 있는 한 군대가 있
을 것이고, 군대가 있는 한 이른바 현대전의 승
패를 가름한다는 공군이 없을 수 없으니 공군의
역사는 길이 이어질 것이고 그 아내들의 보파리
행각 또한 끝나지 않으리라.

그러나 나는 감히 나 자신과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공군의 많은 아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기

에, “우리는 하늘을 지키는 아빠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국방은 우리가 한다는 자
부와 언제나 푸른 젊음 속에서 신선한 호흡을 같
이 한다는 내적인 풍만함과 내 비록 전속에 대한
불만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것조차 여행이 주는
즐거움과 낮선 풍물에 대한 경이를 주지 않던
가?”라고 말하고 싶다.

이제 아빠의 전역도 1년 남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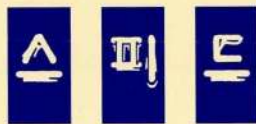
가장 붉게 타오를 청춘의 5년을 공군에서 보낸
아빠가 마치 졸업을 맞는 생도와 같은 착잡한 감
회와 앞날에 대한 설렘을 감출 수 없듯이 나 또
한 그에 못지 않은 제복에 대한 「경의」는 영원히
나의 가슴에 남을 것이니, 공군이여 우리 모두의
가슴에 길이 빛나리. ☹

※ 위 글은 1973년 제2호(통권 제134호) 「공군」의 <특집! 아빠는 공군> 코너에 실렸던
김세환 예)대위(사후 57기) 부인 박현숙 씨의 기고문입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약간은 어색한
표현들이지만, 30년의 세월이 지나도 조국 영공수호를 위한 공군 장병들의 열정과 그 가족들
의 가슴 따뜻한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이 서툴러 가슴에만 담아둔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느껴 보는 것
은 어떨까요?

영화 <스피드>를 연상케 하는

박지성의



외화번역가 이미도
<이미도의 등 푸른 활어영어> 저자

스토리 & 스타일 & 스피드

“훌륭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월트 디즈니사의 로이 디즈니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받았던 질문입니다. 로이 디즈니의 대답은 싱거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첫째, story입니다.

둘째, story입니다.

셋째, story입니다.”

비단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각본에서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역설적으로 강조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로 할리우드에서도 연출력을 크게 인정받은 이명세 감독의 액션무협영화 <형사>가 지난 추석시즌을 기해 공개됐습니다. <형사>를 본 어느 평론가는 “스타일(style)만 있다. 스토리(story)는 물론 액션의 기본인 스피드(speed)가 실종됐다. 마치 두 시간짜리 장편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다”라고 평했다지요. 이명세 감독 나름의 연출의도가 분명 있겠지만요, 속도감 넘치는 액션활극을 기대한 관객들이라면 아쉬워할 만도 했겠네요.

스피드에 승부를 건 액션영화 <스피드>

액션영화의 기본요소 가운데 하나인 ‘속도(speed)’를 영화의 소재로 끌어들이기 발한 아이디어의 영화가 있지요. 바로 <스피드·Speed>입니다. 이 영화는 시속 50마일(약 80km) 밑으로 달릴 경우 폭발하게끔 버스의 어딘가에 폭탄을 장착한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특수경찰관(키아누 리브스 분)이 벌이는 활약상을 그린 액션이지요. 게다가 영화의 광고 카피인 ‘Get ready

for rush hour!’가 잘 암시해주듯이 러시아워 때 시속 50mile(80km) 이상의 속도를 유지한다는 게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관객들은 자연히 손에 땀을 쥐게 마련이겠지요. 물론 전율이 넘치는 극의 전개를 정신 없이 따라 가다보면 어느새 후련한 대단원을 맞게 되니까 스릴만점의 영화라고 해야겠지요.

하지만 서스펜스(suspense) 측면에서는 만점짜리 영화라곤 할 수 없겠군요. 범인이 누구인지, 범죄에 필요한 장치(버스에 장착된 폭탄)가 무엇인지 극중 캐릭터들도 관객도 이미 다 알고 영화를 즐기게 되니까 말이지요. 화목한 가정의 식탁 밑에 누군가가 폭탄을 장착해놓았다고 칩시다. 그 사실을 관객은 알고 있지만 정작 캐릭터들은 모르는 경우 같은 게 진정한 의미의 서스펜스니까요. <스피드>의 시나리오를 쓴 그레함 요스트는 일본의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생전에 구상만 하고 완성하지 못했던 프로젝트의 스토리, 즉 ‘멈출 수 없는 열차에 탄 승객들에 관한 숨막히는 이야기’에서 아이디어를 따왔다고 하는군요. 미국영화협회(AFI : American Film Institute)로부터 ‘심장을 두들기는 역대 최고 100편의 영화·Top 100 Heart-pounding Movies of all time’에 선정되기도 했지요.

제목에 바꾼 덕에 흥행속도 붙은 <터미널 스피드>

speed와 같은 뜻의 단어 중에는 velocity라는 게 있지요. 1994년에 제작된 <Terminal Velocity>는 국내에서 <터미널 스피드>라는 제목으로 개봉이 됐는데요, velocity가 주로 항공분야를 비롯한 전문분야에서 쓰는 기술용어라서 관객들이 이해하기엔 좀 어려운 영어일 거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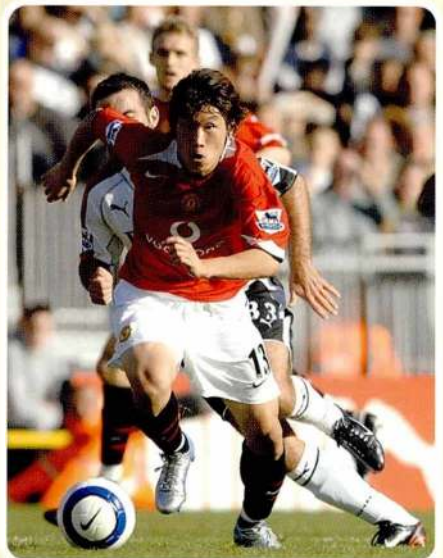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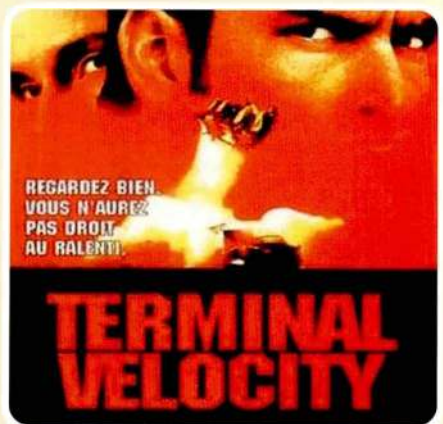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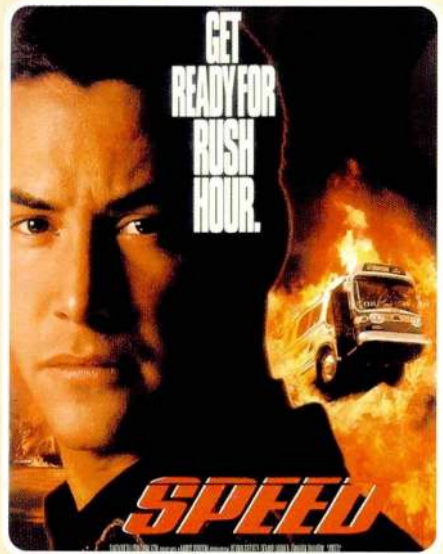
판단한 수입사가 <터미널 스피드>로 제목을 바꿔서 개봉하기도 했지요. 지금처럼 '휘날리는 눈썹'보다 더 발 빠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문화와는 거리가 멀었던 때라 <스피드>의 속편쯤으로 기대하고 극장을 찾아준 관객들 덕분에 영화 관객인구에 대비한 흥행집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군요.

비디오급 3류 영화인 <Night Eyes>가 국내에서 <나이트 보디가드·Night Bodyguard>로 개명되어 소개되는 바람에 <보디가드·The Bodyguard>의 에로틱 버전으로 기대한 관객들이 솔깃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하긴 외교관 부인과 경비회사 직원이 나누는 밀애를 암시하는 포스터에 '모든 게 끝나도 좋아!'라는 카피를 달았으니 누군들 솔깃해하지 않았겠습니까! 현대 누가 제목을 <나이트 보디가드>라고 지었냐고요? 넵, 접니다.

웨인 루니도 허를 내두른 박지성의 스피드

제한속도나 과속방지턱(도로에 볼록하게 만든)은 speed를 써서 각각 speed limit, speed bump라고 하지만 풍속이나 광속은 wind velocity, velocity of light라고 하지요. '저속으로'는 at low speed, '고속으로'는 at high speed, '최고속력으로'는 at top speed,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고속으로'는 at breakneck speed라고 표현하면 만점입니다.

속도와 관계되는 단어 중에 fast라는 게 있지요. 혹시 <패스트 앤 퓨리어스·The Fast and the Furious>라는 액션영화 제목을 아시지요? 제목 속의 fast and furious는 '에너지와 투지가 넘치며 신속한'의 뜻인데요, 지난 10월 1일에 벌어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풀햄전에서 무려 3개의 골을 이끌어낸 박지성을 두고 웨인 루니가 했던 말-"연습 때 박지성은 발이 너무 빨라 수비수들은 서서 막아야 할지 태클을 걸어야 할지 당황한다"-이 일품입니다. 영국 관중과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박지성의 활약을 Park's attack was fast and furious라고 표현하면 참 멋지겠죠? 🚗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방송작가 모은 설

이런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가?

일주일은 왜 하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7일일까?

하루종일 일에 치이는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너무나 짧고, 토요일만 손꼽아 기다리는 주말부부라면 일년처럼 길게만 느껴질 일주일이란 시간적 단위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그 해답의 비밀은 고대 바빌로니아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빌로니아인들은 행성에 신이 살면서 우리 인간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었다. 이 신들은 세상에 전쟁과 질병, 가뭄과 기근, 지진과 홍수를 일으키고, 행성들은 인간 개개인의 운명을 결정한

다고 생각했다. 또 신들이 살고 있는 이 행성들은 신성 불가침의 곳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다섯 개의 행성에 태양과 달까지 합한 7이라는 숫자는 매우 신성시되었다. 일곱 개의 천체는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며 각각의 주관하는 날짜를 지배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이 일곱 개의 천체들이 제 1일부터 제 7일까지 순서대로 토성의 날(토요일), 태양의 날(일요일), 달의 날(월요일), 화성의 날(화요일), 수성의 날(수요일), 목성의 날(목요일), 금성의 날(금요일)을 지배한다고 믿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믿음이 후에 그리스도 교에 계승되었고, 현대까지 이어져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일주일 순서로 고정되었다.

일주일은 왜 하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7일일까?
 하루종일 일에 치이는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너무나 짧고,
 토요일만 손꼽아 기다리는 주말부부라면 일년처럼 길게만 느껴질
 일주일이란 시간적 단위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가?

한 주 한 주 스케줄에 얽매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 싱거운 이유가 아닐 수 없다. 바빌로니아인들이 일곱 개의 천체 대신에 다섯 개의 천체만 신성시켰더라면 우리 삶은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 아닌가. 3일 일하고 이틀 쉬는 주 3일 근무제가 실현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아깝다.

그런데 이런 바람을 실제로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현재와 같은 7일 일주일제를 몇몇 나라가 바꾸어보려 노력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 1792년 프랑스에서는 자기들이 발명한 미터법에 맞추어 10진법의 1주 10일제를 써보려고 했으나 나폴레옹이 이를 폐지했고, 또 소련은 주 5일제를 시도해 보았으나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실패했다

고 한다. 4000년 전부터 이어온 습관의 힘에 눌러 일주일 체제의 전복은 모두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그러나 바꿔 생각해 보면 일주일이 7일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일주일이 5일이라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바쁘고 빠르게 일주일의 쳇바퀴를 돌렸을 것이고, 일주일이 10일이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지겹게 한 주, 한 주를 보냈을테니 말이다.

일주일씩 쌓여가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은 바로 이번 주일지도 모른다. 모든 것은 다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겠는가...

지금 당신이 숨쉬고, 움직이고 있는 이 시간이 당신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임을 기억하기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파이팅! ⚡

죄수에게는 7일이 줄어 들고 병자에게는 7일이 더 주어집니다. 행복한 사람은 일곱 가지 이유를 가지고, 슬픈 사람은 일곱 번 치유를 받습니다. 부자에게는 일곱 번의 저녁만찬이 주어지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일곱 번의 굶주림이 주어집니다.

희망에 넘치는 사람은 일곱 번의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일곱 번의 긴 밤을 지새웁니다. 외로운 사람은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일곱 번 생기고, 결석하는 사람은 죄를 일곱 번 짓게 됩니다. 비관주의자는 일곱 번의 위험을 맞이하고, 낙관주의자는 일곱 번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지구는 일곱 번 돌고 어부는 바다에서 일곱 번 돌아오지요. 마감시간을 맞추기에는 너무나 짧지만, 세상을 창조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지요. 감기에 걸린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지만, 꽃병 속의 장미는 죽음을 맞이하지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일주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일주일은 모든 것입니다.

- 영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중에서 -

400여 년 만의 스크린 그들이 셰익스피어의 고전 <베니스의 상인>

영화평론가 김지훈

현란한 디지털 스펙터클과 이슬이슬한 액션, 장대한 서사극이 오늘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주류라고 해도 할리우드 영화가 언제나 '이야기'에 목말라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셰익스피어, 이야기의 보물창고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영화사 초기부터 영화로 활발하게 각색되어 온 까닭도 영화가 사랑해 온 이야기를 공급해주는 가장 풍부한 원천이었기 때문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햄릿>처럼 통곡이 흘러 넘치는 비극은 리메이크의 단골손님이었고, <헛소동>이나 <한 여름 밤의 꿈>처럼 경쾌한 희극도 예외가 아니었다. 영미 문학의 바이블이자 정신적 문화유산을 스크린에 옮겨놓는 방법도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었다.

로렌스 올리비에와 같은 원칙주의자들은 가능한 한 대사와 플롯을 건드리지 않고 원작에 충실하려 노력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클레어 데인즈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테크노버전 <로미오+줄리엣>, <말괄량이 길들이기>와 <호텔로>의 무대를 현대 미국 고등학교로 옮긴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처럼, 어떤 이들은 새로운 셰익스피어 해석에 도전하기도 했다. 심지어 셰익스피어 자신의 삶과 그가 지은 희곡의 내용을 교묘하게 뒤섞은 퓨전 시대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도 큰 사랑을 받았다.

할리우드의 새로운 시도 <베니스의 상인>

<베니스의 상인>은 텔레비전, 영화까지 합치면 수천 편도 넘는 셰익스피어 각색 시도 중 가장 새로운 버전이다. 더구나 원작이 할리우드에서 지금까지도 영화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 이채롭다.

원작만 놓고 보면 셰익스피어의 중요 희곡 중 상당히 높은 대중성을 자랑한다. 아마도 『햄릿』과 『로미오와 줄리엣』 그 다음으로 독자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는 작품이 『베니스의 상인』일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다른 4대 비극인 『리어 왕』과 『맥베스』만한 인지도와 호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셰익스피어에 약간의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이 작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에 대해서는 가물가물할지 언정 “빛을 갠지 못하면 1라운드의 살점을 내 놓으라”는 고리대금업자의 욕심과 억울하게 죽을 위기에 처한 남



자를 살려낸 재치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음모와 사랑과 피가 흘러 넘치는 이야기의 매혹을 생각하면 이제껏 영화화된 적이 없다는 건 뜻밖이다. 무성영화 시대의 시도는 있었으나 현대의 관객들을 호객하기엔 정치적으로 위험한 이야기였던 까닭이다. 중심인물 중 하나인 샤일록은 유대인. 아무리 좋게 보아도 악질 고리대금업자이자 냉혈한이며, 딸을 잃고서도 딸이 가져간 돈을 아까워하는 수전노에 생명을 두고도 자비를 베풀 줄 모르는 이교도로 묘사된다. 명백한 반유대주의 정서로 가득한 터라 당대 분위기를 참작한다 해도 서구 문화권에선 함부로 다루기 어려운 이야기다. 유대인의 관점에서선 비탄이 가득해야 마땅할 <베니스의 상인>이, 비극이 아닌 셰익스피어의 희극으로 구분돼온 것이 의미심장하다.

원작의 실마리들이 영상으로 되살아나다

<일 포스티노>의 마이클 레드포드 감독은 직접 각색을 맡아 이야기를 다듬었다. 원작의 많은 부분은 그대로 수용됐으나, 원작에 잠재된 실마리들은 그의 손을 타고 부각되기도 했다.

줄거리는 이미 알려진 것과 다르지 않다. 젊고 호방한, 그러나 재산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청년 베사니오와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는 절친한 친구 사이. 아름답고 부유한 상속녀 포시아에게 청혼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진 베사니오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고 안토니오는 보증을 서 준다. 그간의 모욕과 설움을 참아온 샤일록은 이자 대신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담보로 요구한다. 베사니오는 구혼자들을 물리치고 포시아의 마음을 얻지만 그 사이, 잇따른 불운으로 안토니오는 파산 직전에 이른다. 샤일록은 정의를 외치며 약속한 살을 얻기 위해 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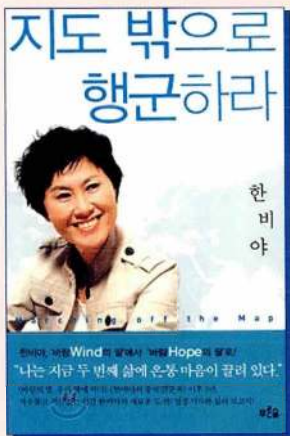
셰익스피어의 다른 작품과 달리 그동안 『베니스의 상인』이 영화화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는 베니스 로케이션의 어려움이 있었던 데다 캐릭터도 복잡하고 여기에 원작의 샤일록을 제대로 연기해낼 만한 배우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세트가 아닌 베니스 현지 로케이션 촬영을 통해 근대 자본주의의 발흥기인 16세기 베니스를 입체적으로 재현했다. 그러나 배경의 사실성은 단지 배경일 뿐, 허구적 등장인물에 살과 피를 불어넣는 것은 배우들의 역량과 그들이 구현하는 캐릭터다. '연기파'로 공인된 노련한 배우들의 가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연기파 배우들로 섬세하게 재탄생된 <베니스의 상인>

가장 섬세하게 재탄생된 인물은 샤일록이다. 셰익스피어극만큼 배우들의 역량이 중요한 작품이 또 있을까. 샤일록을 연기하는 알 파치노는 특유의 관록으로, 그러나 특유의 과장은 배제한 채로 압축된 분노를 표현한다. 그의 샤일록은 너무나 잔인하지만 또 너무나 가련해서(이교도라는 데서 오는 차별과 딸을 잃은 아픔을 간직했기에) 차마 비난하기 쉽지 않다. 안토니오 역의 제레미 아이언스도 못지 않다. 베사니오 역의 조셉 파인즈(<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주인공)와 동성애적 긴장을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살점을 베어 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위엄과 두려움을 조화롭게 유지한다. 베니스에서 머무르면서 16세기의 향락적인 베니스를 재현해낸 촬영과 미술도 영화의 큰 매력이다.

뉴욕타임스의 표현처럼, '벨라스케즈 로고를 옷 위에 수놓은' 인물들과 르네상스 회화를 연상시키는 풍부한 질감의 영상이 빛과 색의 힘을 입어 펼쳐지는 영화 <베니스의 상인>. 그 400여 년만의 할리우드 나들이가 스크린을 화려하게 물들인다. Ⓣ





한비야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오늘도 나는 묻고 또 묻는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가벼운 바람에도 성난 불꽃처럼
타오르는 내 열정의 정체는 무엇인가?
소진하고 소진했을지라도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기꺼이 쏟고 싶은
그 일은 무엇인가?

서평 : 시나리오 작가 박 동 인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 ‘행군하라’라는 제목에서부터 저자 한비야 씨의 전작들과는 무언가 다른 비장한 느낌이 풍겨온다. 오지여행 전문가로 잘 알려진 한비야 씨. 그렇지만 책의 서두 무렵, 그녀는 ‘오지여행 전문가’가 아닌 ‘긴급 구호 요원’으로 불려달라는 부탁을 해온다.

‘바람(Hope)의 딸’ 한비야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에서 그녀가 구호활동을 펼친 곳은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이라크를 비롯해, 에이즈가 창궐하는 아프리카, 그리고 북한까지 수곳에 이른다.

물론 그녀가 일찍이 여행한 지역들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행가로서의 ‘기행문’이 아닌 구호요원으로서의 체험담인지라 본문 구석구석에 이런 긴급 구호현장을 만들게 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재난에 대해 싸우는 구호요원들의 희생정신이 생생히 배어 나오고 있다.

“내 목표는 난민촌장… 내가 행복하니까 한다.”

한비야 씨의 행적이 독자에게 큰 감명을 주는 것은 그녀가 보여주는 발전과정에 있다.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라는 허무맹랑한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룬 것만으로도 보는 이를 벅차게 했던 그녀가 세계 일주를 통해 깨달은 인간의 존엄성 및 고통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 이런 것들을 통해 또 한번 허무맹랑한 ‘꿈’을 이뤄냈다. 그것도 40대 중반을 넘긴 여성으로서 말이다.

세상은 ‘정글의 법칙’이 아닌 ‘사랑과 은혜의 법칙’이 지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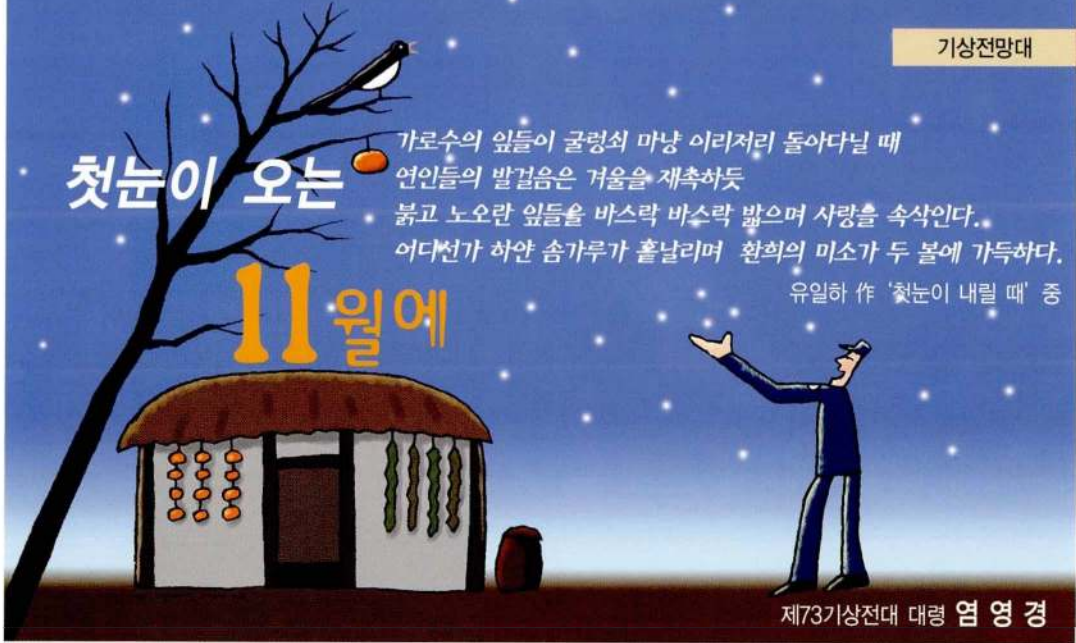
이런 발전은 단순히 부자가 된다는가 유명 스타가 된다는가 하는 개인의 영달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인격자로서의 발전이라는 점이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한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책이 가져다 줄 용기, 책을 읽은 사람들이 가지게 될 고통 받는 구호현장의 난민들에 대한 관심 등등. 이제 한비야 씨의 다음 행보를 기대해본다. Ⓛ

첫눈이 오는

11월에

가로수의 잎들이 굴렁쇠 마냥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
연인들의 발걸음은 겨울을 재촉하듯
붉고 노오란 잎들을 바스락 바스락 밟으며 사랑을 속삭인다.
어디선가 하얀 송가루가 흩날리며 환희의 미소가 두 볼에 가득하다.
유일하 작 '첫눈이 내릴 때' 중



제73기상전대 대령 염영경

여름 한 철 뜨거운 태양에 그을린 까만 피부는 그대로인데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 어느덧 겨울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즈음은 풍성했던 낙엽이 지고 나무들을 금세 헐벗은 가지를 드러내 생명의 변화에 대해 새삼 생각하게 만드는 계절이다. 깊어 가는 가을 하늘은 더욱더 투명해진다.

성큼 다가온 겨울

11월은 월 평균 기온이 3~15℃, 평균 강수량은 50mm 내외로 차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겨울 가뭄이 시작된다. 중순경에는 갑자기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겨울이 우리 곁에 온 것을 느끼게 되고, 하순경에는 전국적으로 첫눈이 내리면서 월동 준비를 서두르게 한다.

돌변기상이 잦은 11월

급작스런 한파와 강풍, 그리고 눈을 동반한 돌변기상은 항공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특히 올해는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많았다. 미국 루이지애나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미국 역사상 단일 재해피해로는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연이어 미국 남부에 영향을 준 허리케인 리타 또한 많은 피해를 주었다.

이러한 기상이변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서 악기상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날씨 변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지상작전 및 항공작전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또한 건조한 날이 이어지고 추운 날씨로 인해 전열기 사용이 급증하니 실내에서는 물론 야외 작업 시에도 화재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절기로는 찬 서리가 내리고 짐 한 쪽 감나무 끝에 까치 밥만이 외로이 홀로 남는다는 입동(立冬)이 7일이다. “초순의 흠바지가 하순의 솜바지로 변한다”는 속담처럼 기온이 급강하하여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은 22일이다. 이때는 시래기를 엮어 달며, 무말랭이, 꽃감을 말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11월은 가을의 끝이자 겨울의 시작이다. 일순간 몰아치는 바람은 짧았던 가을에 아쉬운 작별을 고하고 기나긴 겨울의 시작을 재촉한다. 그래서 예로부터 겨울 준비를 하는 달이 바로 11월이었다.

우리 역시 겨울 준비를 하면서 1년의 업무를 정리할 때이기도 하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보람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하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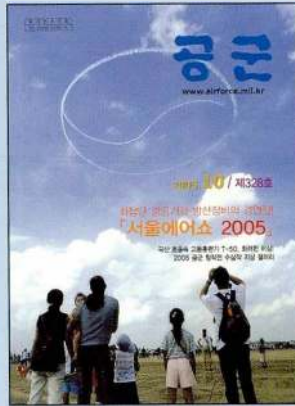


독자의 소리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과 희망을 주시는 공군 편집팀에 감사드립니다. 요즘처럼 힘이 들 때 <공군>을 보면서 젊은 시절 하늘을 누비며 나라를 지키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10월호에 실린 「서울에어쇼 2005」에 가보려합니다. 우리 공군의 든든함과 멋진 모습을 직접 보려합니다. 다음호엔 만추의 향기가 가득하길 바라며 기다리겠습니다.

광주 광산구 정철균

‘천고마비의 계절’, ‘등화 가친의 계절’, ‘독서의 계절’로 대변되는 가을! 「마음으로 읽는 글」의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는 하늘을 본 적이 몇 번인가 스스로 물어볼 만큼 숨가쁘게 살아가는 반



복적인 일상에서 가슴에 와 닿는 글이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삶의 여유를 가져보아야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심재호

「공군창작전」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순회전시회에서 직접 감상하고 싶지만 사이버전시회를 이용해야 할 듯 싶네요. 계획대로 꼭 진행해주세요.

충남 예산군 박경미

올 초에 우리 감정을 촉촉이 적신 배형진군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말아톤’이 큰 흥행을 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스타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광고나 초청행사에 초대되어 거짓 없이 행동하는 배형진군을 보며 게으른 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10월호 ‘거북이 마라톤’에 참가하여 여지없이 일반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것 같아 내가 가진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배형진군이 부럽기도 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문은영

「건강 365」의 ‘가을에 흔하게 발생하는 열성질환’ 기사가 유익했습니다. 병명도 모른 채 뒤늦게 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감염경로를 제대로 알고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열성질환의 종류도 알게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류외숙

「공군소식 I」의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화려한 비상’은 문자 그대로 화려했습니다. 필진필승의 한국 공군이 세계 속의 공군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시 도봉구 송진현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6.1~2006.5.31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공군**

3 2 1 - 9 2 9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 □ □ - □ □ □

공군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수 신 : 참모총장
 참 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 신 :

공군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호) 6233, 02) 506-6233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시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군데)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문제는 59쪽에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군데)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문제는 59쪽에

다른 그림 찾기

▶ 이번호 문제



* 사진설명 : 「제17회 공군참모총장배 행·패러글라이딩 대회」



▶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 보세요.

▶ 지난호 정답



▶ 지난호 당첨자

- 충북 충주시 병장 국동우
- 충남 계룡시 김세현
- 대구광역시 북구 류외숙
- 서울시 종로구 문은영
- 경남 진주시 문중현
- 충남 예산군 박경미
- 광주광역시 남구 오병관
- 경북 영주시 상병 윤성환
- 경기도 성남시 이연옥
- 대구시 수성구 정정숙

「공군」 독자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지난호에도 많은엽서가 도착했습니다.
바쁜 일과 중에서도 엽서를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내실 곳 : 우편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공군」 담당자

마 감 일 : 11월 19일까지



신뢰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준장 안정훈

단테의 신곡은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의 3부로 이루어져 있다. 1307년부터 14년간에 걸쳐 집필된 신곡은 단테가 일주일간 지옥 3일, 연옥 3일, 천국 1일을 가상으로 여행한 기록이다.

지옥문에 들어선 단테는 제1환에서 제9환으로 이루어진 고리를 통과하며 지옥세계 곳곳을 보게 된다. 마지막 지옥인 제9환에서는 배신과 야합의 표본인 귀족 우골리노와 주교 루지에리가 죽어서도 비열하고 잔인한 상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최고의 악인은 배신자

제9환을 지나 가장 악인이 버려진 상지옥에 이른다. 그 곳에서는 예수를 팔아 넘긴 가롯 유다와 로마 황제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뜰어 먹고 있었다. “공화정을 구한 브루투스 너마저 지옥에 있다니!” 단테도 놀랐다.

하지만 어떤 명분이라도 배신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암시한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카이사르를 배반한 세 사람은 눈물로 후회하고 있었지만 죄는 용서되지 않았다. 지옥 중의 상지옥에 떨어져 사탄의 피문은 입에 뜰어 먹히는 최고의 악인은 바로 배신자라는 사실이 놀랍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신뢰

신임 공군참모총장 김성일 대장이 지난 달 7일 취임했다. 당일 오후 훈시와 면담 자리에서 4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강한 공군이 되자. 둘째, 변화를 주도하는 공군이 되자. 셋째, 신뢰받는 공군이 되자. 넷째, 매력 있는 공군이 되자」였다.

이 중 세 번째 ‘신뢰받는 공군이 되자’를 가장 강조했다. “신뢰를 주고 신뢰를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특히 신뢰를 강조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자기 암시와 확

신을 주기 위해서이다.” “신뢰의 요체는 정직이다. 정직하면 신뢰는 당연히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을 인용했다. 모두가 절대 공감했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이기 때문이다.

김성일 총장은 이런 이야기도 했다. “총장으로 임명된 후 많은 생각을 했다.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직책이다. 하지만 내가 먼저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이 나를 믿고 따라 준다면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신뢰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나부터 Role Model이 되는 것이다.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 ‘솔선수범’ 하는 것이다. 나는 무엇보다도 솔선수범을 통해 신뢰를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전적으로 공감하며 아낌없는 기대를 보낸다.

신뢰는 탁월한 리더십의 요체다.

탁월한 리더십을 공격하는 소위 ‘리더십 킬러’가 곳곳에 잠재해 있다. 첫 번째가 잘못된 상관이다. 자기 도취형이고 후배를 양성하지 않는 선배다. 훌륭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질이 다듬어지지 못하고 메말라 버린다.

두 번째는 질시하고 공격적인 동료다. 이런 동료들 때문에 서로간의 신뢰가 깨지고 팀워크는 메말라 버리며 조직은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세 번째는 불순종하고 부정적인 부하다. 이런 부하를 만나면 리더의 자질이 죽는다. 그들이 퍼뜨리는 근거없는 루머, 무례한 비방과 반항 그리고 무책임한 행동들이 훌륭한 리더를 낙심과 좌절에 빠뜨린다. 이런 부하를 가리켜 ‘숨어있는 상어(Hidden Sharks)’라고 부른다.

과연 나는 어떤 유형일까 생각해 보자. 아울러 새로운 각오와 자세를 다짐해 보자. Ⓣ

알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공군인들의 종합교양지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들의 수기나 문예작, 사진작품, 기타 일상생활에서 느낀
진솔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 모집분야 :
- 사진 : 앞뒷면 표지, 공군은 지금
 - 원고 : 화제의 공군인, 부대/부서탐방, 테마가 있는 나들이(기행문), 동아리 마당, 장병문예(시·소설·수필), 독자마당 등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군가족 및 예비역 원고 환영
- 응모기간 : 연중 계속
- 분 량 :
- 사진 : 4×6 이상 혹은 디지털이미지(JPG : 500Kb 이상)
 - 원고 : 원고지 10매 내외(A4용지 1.5 ~ 2매), 관련 이미지
- * 간단한 약력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명기

보 낼 곳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10 문화홍보과 「공군」 담당(우편번호 321-929)
E-mail : (인터넷) afzine@airforce.mil.kr, (인트라넷) minjkang@af.mil

문 의

02)506-6233, 호)6233



2005년

공군군악 정기연주회

Air Force Band Annual Concert

지휘: 중령 이 상 수
대위 김 희 강

2005년 11월 25일(금) 19:30

KBS 홀



공군본부